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川越、張兩氏會見
雙方態度極愼重
單純히 콤뮤니케만 發表
二次會見은 未定

【南京十五日發同盟】日中國交上에 劃期的一線을 畫할 川越大使 張群外交部長의 會見은 豫定대로 十五日午後四時부터 外交部에서 行하엿다 問題의 重大性에 鑑하야 日中兩國이 모다 態度 자못 愼重을 極하야 今日의 會見에 關해서도 左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슬뿐이오 其他는 一切說明을 避하엿다

콤뮤니케

川越大使는 今日午後四時 外交部에서 外交部長張群氏와 會見하얏다 日本側은 須磨南京總領事 淸水通譯官, 中國側은 高宗武亞洲司長 邵毓麟情報司日本科長이 立會하야 日本側은 먼저 成都、北海兩事件에 關한 國民政府의 意向을 質問하엿다 張外交部長은 如斯한 不幸한 事件이 起한것은 가장 遺憾이라것을 認定하고 國民政府가 取한 措處를 說明하야 兩者間에 本事件을 中心으로 兩國의 全般的問題에 關하야 意見交換을 行하고 午後六時 會見을 終了하엿다

具體的結論은 第二次會見에

第二次會見은 明日에 다시協議한後 決定할터이다

【南京十五日發同盟】今日의 川越大使張群外交部長의 第一次會見은 外交部長室에서 行하얏는데 雙方이 非常히 緊張을 示하야 베스트멤버를 거느리고 愼重協議하엿는바 今日은 全般的問題의 討議에 끈치고 具體的結論을 엇게되지안코 次回會見으로 되는모양인데 前途의 紆餘曲折을 不免할것으로 보인다

上海에 局部戒嚴令
反日暴動計畫暴露로

【上海十六日發同盟】成都、北海兩事件과 가튼 不詳事가 發生하야 日中國交調整의 前途에 重大障碍를 招來하야 南京當局者로 하여금 痛歎케하고잇는 이때에도 不拘하고 中國各地의 事態는 改善되지안코 各地에 排日運動再擡頭의 氣運을 示하고잇서서 九月十八日 滿洲事變記念日을 再明日에 앞두고 又復上海抗日團體의 暴動計畫暴露等으로 中國官憲은 極度로 周慌하야 淞滬警備司令楊虎氏는 上海市長吳鐵城氏와 緊急協議한 結果 中央의 指令을 바더 十七日부터 二十日까지 四日間上海에 臨時局部戒嚴令을 施行하기로되어 十六日 그旨를 公布하엿다 右에依하면 同期間中은 集會、示威運動、盟休、罷業、停業의 撤布其他 治安에 影響잇는 一切의 行動을 禁止하고 違反者는 戒嚴法令에 依하야 處罰하기로되엿다 또 共同租界 佛租界에서도 右戒嚴令에 應하야 同樣으로 特別警戒를 行할것이다

昨日鬪爭에 ... 行方이 判明되지안헛다

佛緊急閣議

【巴里十五日發同盟】佛蘭西政府는 十五日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西班牙內亂 對策과 國內勞働爭議 其他 重要問題에 關하야 四時間동안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閣議後 左의 콤뮤니케가 發表되엿다

一、閣議의 結果 [illegible] 十七日午後 外交政策에 關하야 發表하기로 決定하얏다

一、金融과 社會政策에 關해서도 協議하엿는데 [illegible] 對策을 講究하기로되엿다

柳生圖書課長夫人

柳生圖書課長夫人 [illegible] 治療中이든바 十六日午前七時半 드듸어 逝去하얏다 享年은 二十七歲

十九路軍撤退를
李白兩氏承諾?
蔣介石氏의 嚴談으로

【廣東十六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四日 李宗仁氏에게 對하야 十九路軍을 南路로부터 撤退케할것을 要求하는同時에 中央對廣西의 妥協條件中 未決定項目을 解決키爲하야 目下 李宗仁、黃旭初兩氏等 留任官就任式에 立會하기爲하야 南寧에 滯在中인 程潛、黃紹竑兩氏에게 電命하야 李白兩氏에게 對하야 北海事件을 外交交涉에 옴기기爲하야 廣西派는 中央、廣西兩軍間에 成立된 北海撤退의 約束을 嚴守하고 十九路軍을 南路로부터 速히 撤退케하도록하라 萬若 廣西派가 右約束을 履行치안흘때에는 重大國際紛爭을 惹起할것이라고 嚴談케한結果 李白兩氏도 十五日午後에 至하야 南路의 十九路軍을 數回에 分하야 撤退할것을 承諾하엿다고 確聞된다 事實이라면 十九路軍은 北海를 撤退하게될터인데 北海에 잇는 十九路軍師長翁照恒氏가 果然 李白兩氏의 撤退勸告를 물을는지 또 李白兩氏가 十九路軍의 北海撤退에 關하야 全幅的誠意를 示할는지 그 眞否가 疑問視되어 이 進展이 注目되고잇다

反日急先鋒
南寧을 退出

【廣東十六日發同盟】南寧에 來滯中이든 反蔣抗日의 急先鋒인 李濟琛、蔡廷楷兩氏는 十五日突然 南寧을 退出하야 香港으로 向하엿다고 李宗仁氏도 彼等의 香港行을 肯定하고잇다 李濟琛、蔡廷楷兩氏가 南寧을 退出한것은 中央과 南寧의 妥協成立으로 彼等의 立場이 困難하게되엇슴과 十九路軍의 北海撤退를 兩氏가 拒絶하게되엿슴에 잇스므로 이以上 彼等이 南寧에 잇스면 李宗仁氏의 立場을 困難케할것이므로 李、白兩氏와의사이에 某種의 諒解가 成立된 結果라고 보고잇다 그런데 蔡廷楷氏는 南寧을 退去함에 앞두고 中國新聞記者團과 會見하야 如左한談話를 發表하엿다

團結一致하야서 倭寇에 當할것은 勿論 나의 意思이다 但 이를爲해서는 實力을 準備하야 然後에 이主張을 實行할것이다 新編成十九路軍의 處理는 李宗仁氏와 李、白兩氏에게 全部委任하엿다

八面鋒

◇軍需産業統制法을 外地에도 適用하기爲하야 近日中에 折衝하리라고。

◇電力, 肥料따위의 朝鮮獨自性도 어느程度까지 抑制할수가 잇슬것인가。

◇對西不干涉案으로 倫敦에서 國際委員會가 열리엇다。

◇佛伊에서는 안열다는 뜻을 決定하야가지고 甲論乙駁하는것을보면 이會의 結果도 시원치 못할것을可期。

◇海軍의 南遣部隊 海南島에 集結을 完了하고 命令一下를 기다린다。

◇川越、張群交涉도 開始되얏다하니、日中國交調整의 分水嶺에 올라선모양。

陸軍空前의 大豫算
大藏省에 提出
三十三億의 巨額!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압서 作製中인 明年度豫算槪算書와 明年度以降六個年約三十億圓의 新國防充備計畫大綱을 完成하엿스므로 參謀本部其他關係方面의 內示를 마치고 十五日 大藏當局에 提出하엿다 今次豫算은 陸軍空前의 大國防充備計畫을 本格恒久化한데 一大特長을 가지고 昭和十二年豫算과 함께 六個年에 亘하야 約三十三億에 達하는 尨大한것인데 當初에 統帥部가 急迫한 國際情勢의 判斷에 基하야 省當局에 提示한 國防充備計畫案은 實로 百億圓에 達하려는 尨大한것이엇스나 軍政當局의 自發的查定에 依하야 겨우 六個年約三十三億圓程度에 끈칠수잇게된것이다 그年度割은 如左하다

昭和十二年 三億圓
同 十三年 六億圓
同 十四年 六億圓
同 十五年 六億圓
同 十六年 六億圓
同 十七年 六億圓

그런데 初年度分 三億圓은 後年度에서 展開될
一、航空防空兵力의 增加
二、在滿兵力의 增强
三、作戰資材整備의 充實
四、一般兵備의 改善
의 四大項目實現에 資하기爲하야 敎育機關擴充、防空機關과 要員의 準備編成、裝備改善을 하려는것이다

王政復古
叛軍側몰라將軍演說

【부르고스十五日發同盟】叛軍北軍總司令 몰라將軍은 十四日夜 一般民衆을 압두고 「王政復古만이 祖國을 救하는 唯一의 길이다」라고 力說하야 如左히 演說하엿다

我叛軍은 西班牙全土를 完全히 掌握한後 統一된 國家內의 自治를 確立하고 그리고 그 終局의 目的은 王政復古에 잇다

旗艦「出雲」上에서
海外首腦緊急會議

【上海十五日發同盟】北海地方의 時局이 자못 緊張을 加하게되야 當地海軍外務出先首腦部는 十五日 午後五時부터 第三艦隊旗艦「出雲」艦上에서 緊急艦上會議를 開하고 海軍側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 岩村同參謀長、荻野駐在武官、大使館側 若杉參事官、吉岡書記官과 今日到着한 中村廣東總領事、堀內天津總領事、田尻書記官等이 出席하야 緊張한 時局對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하고 海外兩當局은 가장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時局의 急變에 善處하야 萬全을 期할것을 議決하고 午後七時 緊張裡에 散會하엿다

中國側依然
責任廻避

【廣東十五日發同盟】吉竹總領事代理는 日本側官憲의 上陸調查及 十九路軍의 撤退問題에 關하야 十四日夜來 再次키作謙氏를 訪問하고 折衝中인데 十五日午前의 會見에서 키氏는 中國側에서 實力으로 行使하야 十九路軍을 北海로부터 撤收시키는것은 事件을 다시擴大할 憂慮가잇서서 不可能하다고하야 現在로는 蔣介石、余漢謀兩氏에게 武力解決의 誠意가 업다는것을 裏書하고

米國明年度豫算
國防費十億弗突破
新規國防計畫이 主因

【華盛頓十四日發同盟】米國政府는 一九三七—三八年度豫算案編成이 大體로 終了되엿스므로 目下 關係各省에서 最後의 檢討를 加하고잇는데 그中 國防費總額은 十億弗을 突破할것으로 보인다 國防費의 增額은 物價의 騰貴도 原因이되나 國際情勢에 鑑하야 旣定의 新規國防計畫이 重視된때문에 그費用이 그러케 만케된것이다

米메인州選擧
共和黨이 大勝

【포들란드(메인州)十五日發同盟】메인州知事와 上下兩院議員選擧는 十四日午後 一齊히 擧行되엿는데 十五日午後 六百三十三選擧區開票의 結果 共和黨이 壓倒的 勝利를 確保하야 民主黨이 兩選擧에서 敗退하엿다 메인州의 赴하는곳 全米는 이에 따른다고하야 今回의 選擧結果는 大統領戰의 結果를 卜하는 前哨戰이라고 重視되다

電力三相會議

【東京電話同盟】十五日의 電力三相會議는 午後四時부터 鐵相官邸에서 開하엿는데 同日의 會議에서는 主로 東北振興電力會社設立에依한 同地方의 電力統制와 國營案과의 關係에 關하야 事務當局의 說明을 聽取한데끈치고 馬場藏相도 所關이잇서 中途 退席하엿스므로 三相間의 會議에 이르지못하여 今週中 再次三相會議를 開하기로하고 六時二十分 散會하엿다

辭令

(農產課長) 朝鮮總督府事務官 山澤和三郎
陞敍高等官二等
總督官房審議室勤務를 命함
(林政課長) 同 鈴川壽男
總督官房文書課長兼總督官房臨時國勢調查課長을 命함
(文書課長) 同 園田正洪
農林局農產課長을 命함

政府軍北方牙城
빌바오攻擊開始
市民은벌서 避難騷動

【앙데十五日發同盟】叛軍北軍總司令官 몰라將軍은 부르고스叛軍國防委員會指令에 對하야 北方政府軍最後의 根據地 빌바오進擊을 命하엿다 先鋒部隊는 十五日夜 빌바오市로부터 二十五粁地點에 肉迫하엿다 一方 進擊에 備하야 陸海空三方面의 防禦에 萬全을 期하고잇다고한다 빌바오市民부터는 벌서 佛領에 向하야 避難民이 殺到하고잇는中인데 此等 避難民의 말에 依하면 빌바오市民은 食糧難과 惡疫流行에 苦痛하고잇는때에 攻擊의 報를밧고 벌서 大混亂을 呈하고잇다고한다

白頭山探險記

密林地帶지나서
輕石層傾斜地로

(26) 徐椿

農事洞으로부터 無頭峰까지의 一日行程은 말하자면 密林地帶의

密林으로 構成된 原始的深林地帶다。今日行程인 無頭峰으로부터 白頭山絶頂까지의 五十里는 이에 反하야 無樹地帶다。말하면 無頭峰을 境界線으로하야 密林地帶와 無樹地帶로 判然히 갈니워진데、兩地帶는 다른 方面으로도 區別되는 點이 만타。첫재 農事洞으로부터 無頭峰에 至하는 深林地帶는 地勢가 平平坦坦하야 傾斜가 殆無하다。그러므로 事實은 올나오는것이지마는 것는(行步) 사람은 올나온다는 感覺이 업시 것는것이다。이에 反하야 無頭峰과 白頭山絶頂間의 五十里에는 傾斜가 잇다。故로 前者는 無傾斜地帶요、後者는 有傾斜地帶라고할것이다。

傾斜地帶五十里間에 共通한 또 한가지 特徵은 地層이 全部火山灰와 輕石(浮石)으로 構成되엿다는 一點이다。풀이 나기도 잇지마는 赤地、又는 禿地가 더만타。그 意味로 草原地帶라기 보다는 輕石層地帶、又는 火山灰地帶라는것이 도리어 事實에 가깝다。다음 이 五十里ㅅ길의 또한가지 特徵은 氣溫이 훨신 나자서 녀름(夏期)의 期間이 훨신 짜르고、바람이 强하다는데 잇다。故로 이地帶는 녀름에도 겨울 옷을 입지 안코는 가지 못하는 地帶다。

白頭山絶頂에 至하는 最後의 五十里ㅅ길은

一、나무 업는 方面으로 말하면 無樹地帶요、
二、地層이 火山灰와 輕石의 混在로 된 方面으로 말하면 火山灰地帶 又는 輕石層地帶요、
三、傾斜가 잇는 方面으로 말하면 有傾斜地帶 또는 傾斜地帶요、
四、氣溫이 나즌 方面으로 말하면 低溫地帶요、
五、바람이 强한 方面으로 말하면 强風地帶요、
六、倭小한 奇花妖草가 잇는 方面으로 말하면 草原地帶다。

何如間、이 地帶에는 灌木、喬木할것 업시 나무라고는 하나도 업고、겨우 倭小한 幾十種의 草本類가 잇슬뿐인데、그업는 理由는 아래와 가티 생각할수가 잇슬것이다。첫재 火山灰니 輕石이니하는 地質이 樹木의 生長에 要하는 養分을 供給하기에 不適한때문일것이요、다음 幾分의 養分을 供給할수가 잇다고 할지라도 氣溫의 寒冷과 바람의 强度가 樹木의 生長을 許치 아니하는때문일것이다。

다음 이傾斜地帶五十里ㅅ길은 다시 둘로 나홀수가 잇다。卽、첫 四十里ㅅ길은 緩傾斜地帶요、마즈막 十里ㅅ길은 急傾斜地帶다。그러고 緩傾斜地帶四十里ㅅ길에는 主로 西風이 불고、急傾斜地帶十里ㅅ길에는 方向업는 바람、엇지로 方向을 말하면 東西南北風 또는 四方風이 부는데다。

우리 一行은 八月十三日午前七時、無頭峰에서 白頭山絶頂을 向하야 出發햇다。

今日은 드듸여 平生의 所願이요、今番探險의 目的인 白頭山絶頂에 到達하야 天池를 볼수가 잇슬것을 생각하고 우리 一行은 希望、元氣、活氣에 찻다。

다만 한가지 念慮되는 일은 昨夜부터 始作해 오는 비가 아직도 채 멋지 아니하는것이다。

『無頭峰에 비가 오면 白頭山絶頂에는 濃霧가 끼고 안흘까? 絶頂에 濃霧가 끼면 거기서 俯瞰해야 될 天池를 나려다 볼수가 업지 안흘까?』

이러케 생각되기때문에 憂慮가 되는것이다。

갑작히 冬服에 雨裝까지 하니까 身裝이 甚히 무겁고、行步가 自由롭지 못한 感이 만타。不便하고 거북한 거름을 一步一步 옴겨 노아 約三里ㅅ길을 와 보니、끝이지 말라、여지껏 平坦하든 路面이 갑작히 傾斜가 지면서 前進方向엔 樹木이 업다。마치 누가 잇서서 地面에 區劃線을 그어 노코서 이짝에는 나무를 빽빽히 심그고、저짝에는 赤地대로 그냥 내버려둔듯이 有樹地帶와 無樹地帶의 境界가 아조 分明하다。(寫眞參照) 이것을보면 人類가 規律方正한 制度文物을 꿈일때에 사람의 知慧가 따로 생긴것이아니라、亦是、大自然의 知慧그대로를 模倣한데 不過하다는 理致를 깨다랏다。

密林地帶를 버서 나면서 第一着으로 感覺되는것은

『바람은 왜이러케 세(强)며、춥기는 왜 이러케 추우냐?』

하는 一事다。

風向이 西風인데、우리는 西便을 向하야 것(步)고 잇기때문에 바람은 우리의 前進을 몹시 妨害한다。一步를 내집흐면 半步쯤은 바람에 밀니어 도로 退却할수바게 업다。이때에 나의 前進에 가장 有助한것은 短杖이엇다。短杖의 助力에 依하야 一步를 前進하고 短杖의 支持力에 依하야 半步의 後退를 防止한다는 式으로 約一里동안을 前進하다가 문득 한 理致를 깨다르니

『逆風을 逆行하는데는 身裝의 바람 밧는 面積이 적을수록 편한데、나는 이雨裝을 입엇기때문에 바람의 妨害를 더 밧는구나。』

하는 一事다。이에 一大覺悟下에 雨裝을 斷然 버서 버렷더니、果然、前進이 훨신 容易해지는 同時에 妙하게도 오든비가 그치고 마럿다。(寫眞은 有樹地帶와 無樹地帶와의 境界線)

嶄新的 設備의 현대적 最良品
우리가 타고난 美를 完全히 나려내고 더욱 艶潤나게하야、우리의 雅麗한 살결에 곡마저서 은근한 淡化粧用으로 無二의 現代的 水白粉입니다。
二好水白粉
三好粿白粉 三好크림 三好刷白粉 三好美容波 三好化粧水 三好髮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寶라마—드 三好頰紅 三好口紅 三好コリア石鹼 (고리아) 三一石鹼 朝鮮石鹼
資本金五十萬圓 京城府昭和町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⑨一七二七 振京一五九五八

朝報案內
日本一安い保險料 愛國生命
社員招聘 年齡二十五歲以上男子五名 特別待遇 生活安定 經驗有無不關 履歷書持參
京城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京城出張所 指導者 崔宇植

오케—大傑作流行歌
채란새 朴英鎬作詩 孫牧人作曲 李銀波
(一九一四)

特許張機移轉記念景品 數有限 印刷
最新式繩叺打機 新式瓦打機 籾摺機
大阪市西淀川區浦江中二 石塚農機製作所 電話福島二二四六番

耳鼻咽喉科
永日姜士博學醫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完備室入院

말더듬이
重難한 訥言도 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訥言專門矯正院

生徒募集
六ケ月卒業 ▲土地測量、測量規定、法規、計算製圖、實習、數學、滿洲語
京城府蓮建町一九五(醫專前)
京城測量技術講習所
(學則請求要二錢切手)
出願十月二十六日限 開講十一月一日
電話光二七八九番・振替京城一八、七二四番

半島國語敎育界의 福音!!
總督府制定・敎育會認定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國語讀本
標準朗讀레코—드
各學年後期用第二輯 發賣!
콜럼비아레코—드

新案 特許
マウントン印播碎機
最新L.L.型傳導マグネツト付 三馬力ヨリ五馬力半迄
能力=一時間二米細粉 五升乃至一斗
用途=唐モロコシ 豆、米、麥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當ル九月十七日ヨリ五日間咸南咸興農具實演會ニ出品
大特價直卸し開始
在庫豊富
二馬力ヨリ十二馬力マデ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振替京城一八二四三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九月十六日(晝夜) (學則要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入編入學受驗準備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校舍大擴張
第四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後期)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六日◇學則要二錢切手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癌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顧問 京城帝大醫學博士 松本恭治 醫局女醫 李敬信
電本②〇四六二・五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東光堂書店
二學期學用品仕入은
文房具卸部
至今부터 特히 初開業諸位에 一便宜를 圖하옵고 速酬應함
目錄要二錢切手封入
各官廳學校銀行會社事務用品具備
京城府寬勳町 電光五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貳一番

男女淋疾의 靈藥
治麻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 百個入 一圓八十錢 百八十個入 三圓 三百卅個入 五圓
患者諸氏여 言論보다 效果에 事實이 證明되는 症狀이 輕至하오니 効力의 有無는 試用後 可知하것사오며 用法禁忌注意說明書에 詳記
製造元 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電話本局②二九六九 振替京城二二六九九
此外 製劑 四十餘種 貳錢 郵票 보내시면 割引票及規則書 付

洋品雜貨 仕入은
卸問屋
文化商會로
京城鍾路四丁目 電光一八一一番
振替京城進星

雨魔의退却따라 蒙古冷氣가來襲

高低氣壓에飜弄된朝鮮半島

六度―七度急低下

삼복성열도 어제갓고 지리한 장마도 언제나 모칠는지 알수 업는것갓드니 구월접어들면서부터 갑작이 날세가 불규측하야 일긔가 개엿다하면 흐려지고 흐려지나하면 비가오곤하엿다 그것도면칠이못되여 어제 오늘은 아츰저녁에 제법치운긋깃까지늣기게되엿다 하늘은놉파지고 일긔는 명랑하야 조선이아니고서는 보기어렵다는 가을의 조흔 긔절은 마침내 왓스나 넘우도 갑작이 서드는 신량(新凉)인듯하며 장진(長津)일대에는 벌서 눈이 두치나싸엿다는 소식을산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도 할수업다는 하늘의소위이며 더구나 절후(節候)이지만 하도궁금하기에 경성측후소에 물어보앗드니 대개다음과가티 그리유를 설명해준다

지난십사일부터 북중국과 몽고(蒙古)에 고긔압(高氣壓)이 잇섯는데 십오일부터는 일본해에약한 저긔압이 나타낫다 그리고 남조선방면에는 불연속선(不連續線)이 잇기때문에 이곳저곳에서비가내리고잇다그런데금십륙일에는 저긔압이북해도(北海道)방면으로 다라나고 그뒤를 따라서 고긔압이나타나서 조선반도도 마침내그 고긔압권내에들어서 일긔가 청명하여젓스나 이와가티 날이뜰면 대지(大地)의 열(熱)이발전하야 온도는 갑작이 떠러지는법이다 그리하야 어제아침부터는 긔온이륙도내지 칠도나 급격히떠러젓고 적어도두도는 나저젓다 그리하야 례년의온도보다―(최저온도로비교)―평균이도 오분이 떠러젓고 작년이때와는 거의동일한 온도이다 측요략해말하면 첫재 조선반도가 고긔압의권내에들어섯고 둘재 일긔가조하젓기때문에 지열(地熱)이랭각되엿고 셋재 조선에잇는 저긔압이 북해도방면으로 다라난뒤를 따라서 쫏차온고긔압으로부터 몽고와북중국방면으로부터 찬바람이 불려오기때문에 조선반도의 긔온이갑작이 저하한것이다

水害尤甚한八道에 誠金十萬圓發送

朝鮮社會事業協會에서지난十五日附로

既募한十五萬圓中에서

조선사회사업협회(朝鮮社會事業協會)에서는 이번수해구제의연금으로 이미모인 십오만원중에서 우선십만원을 다음과가티수해가 가장심하엿든 팔도에분배하야 십오일에 현금을각기 보내엇다한다

▲京畿道 一、〇〇〇圓 ▲忠北 四、三〇〇圓 ▲忠南 一、五〇〇圓 ▲全北 六、九〇〇圓 ▲全南 一五、〇〇〇圓 ▲慶北 一五、五〇〇圓 ▲慶南 三五、八〇〇圓 ▲江原 二〇、〇〇〇圓

卅錢의賃金으로 一日生活을扶支

八道의水害民十八萬餘戶

救急對策의內容

팔월중순으로부터 하순까지 두차례로 엄습한남부와 중부지방의 대수해의 피해는 고래에업는 수자를 표시하야 그참혹한정도는 더말할수업거니와 이왕죽은사람은 죽엇다하고 묻허지고 떠나려간 녯집터와 전답을직히고잇는 리재민들만은 추운한 구조시설등하야 유감업시생활의 부흥책을 강구하여야할것으로 일반의 뜨거운동정과 당국의 대책에의하야 점차구제책이 진행중인데 우선그리재민중에 구제를 요하여야할인원이엄마나 되느냐하는 구제책의 긔본수자에 대하야 최근 총독부사회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긔、강원이남 팔개도에 십팔만칠천구백삼십륙호라는 놀라운 수자로 매호에 평균 다섯식구로 잡으면 실로 구십삼만구천륙백십삼명의 다수에 달한다 그중에는 일개월간、또는삼개월내지는 래년보리추수를 할때까지 금년구월부터 명년오월까지 구개월간 구제를 하여야할것도만타 구제는 여러가지공사에 의하야 한호에 하로평균 삼십전、일개월에 구원의 로임지즙을하야 연명의책을 강구케할모양으로 방금 각가지의계획을 진행중에잇다 이제 각도의 구제하여야할 호수를보면 경북의 사만팔천여호 경남의 사만일천구백여호 강원도의 삼만칠천구백여호등이 제일만코 그다음이 전남의 일만팔천구백여호 충북의 일만오천여호 제일적은곳이 경긔도의 칠천여호이다

要救急戶數

京畿	七、四三六戶
忠北	一五、六四二
忠南	九、五五六
全北	八、〇一九
全南	一八、九三八
慶北	四八、四三九
慶南	四一、九六二
江原	三七、九四四
合計	一八七、九三六

十月三十一日은 世界勤儉貯蓄日

朝鮮에도實行키를準備中

체신국에서는 오는시월 삼십일일에근검데이(勤儉日)를 준행할양으로 방금 여러가지의준비를하고잇다

즉 시월삼십일일은「세계근검데이」로 아직 일반에게 널리알려지지안엇스나 이제로부터 십삼년전에 이태리(伊太利)「미란」이라는곳에서 각국의 저축긔관의 수뇌자회의가 열려서 국제근검협회의 설립과「세계근검데이」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야 그뒤부터 차차로이에 참가하는나라가 증가하야 요지음에는 그협회원은 이십팔개국에서 오천오백명이나 된다한다

이들 회원은 서로근검저축에 힘쓰고잇는데 그시설한사항과성적기타의 통계등은 협회에보고하야 각국의장려시설의 자료로 삼는다한다

더욱이시월삼십일일의『근검데이』당일에는 그림、강연、실례(實例)등으로써 그취지의 보급에힘쓰고잇스며 최근에는『근검데이』당일에는 특별히소년소녀들에게 근검교육을 시킬것을 결의하엿다한다 일본내지에서도 년전부터 이것을실시하야 상당한성적을 어덧는데 조선체신국에서는 요지음에「포스터」내여걸기와 학교아동들의동요(童謠)작문의현상모집과 취지서의배부 기타의시설에 대한 준비를진행하고잇다한다

本報支局後援下 救濟素人劇

【長湍】 금번 풍수해로 말할수업시 참혹하게된 이재동포에게 다소간 동정을 표하고저 경고도장단여전 청년들의 주최로 본보장단지국후원하에 오는십구 이십양일간 당지공회당에서 수재구제의연소인극(水災救濟義捐素人劇)을 성대히 개최한다는데 일반인사의 만흔후원과 물질적 동정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五歲少女溺死

【奉化】 지난십이일오전열시경에 봉화군내성면유곡리(奉化乃城面酉谷里)에 거주하는 윤석윤(尹石允)의 장녀윤명화(尹明化)(五)는 동리앞 개울에 노힌다리를 혼자서건너다가 떠러저 무참히죽엇다고한다 일반부모들은 홍수가빈번한 차제에 만흔주의를 하여주기바란다고한다

北朝鮮가는移民列車 十六日부터輸送

江原道水害民八百五十名을

各炭鑛에就業斡旋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이번에 수해리재민일부를 북조선에 이민식히게되야 우선강원도로부터 팔백오십명을라진(羅津)과회령(會寧)유선탄광(遊仙炭鑛)에 십륙일부터이십삼일까지 팔일간에 나노아수송하기로되엿다는데 수송경로는 강원도각군의 리재민을 제천(堤川)으로 수송하야 충주(忠州)로부터 철도로 경성역과 청량리(淸凉里)역을 통과식히어 함경선으로 수송케되엿다하고 그리고 각군별로 이민수를보면 다음과갓다

寧越六〇〇人 原州一五〇人 橫城五〇人 淸州(忠北)五〇人

宋昌濂出獄

소화삼년에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동경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징역팔년의 언도를밧고 이래 동경시곡형무소(東京市谷刑務所)와 북해도함관형무소(北海道函館)형무소에서복역중이든 송창렴(宋昌濂)은 지난사일출소하야 동경을거처 평양에도라와 죽전리(竹田里)일사이번지 매씨가에 기류중이라한다

咸南에橫行튼 竊盜犯人逮捕

【咸興】 지난십일 오후아홉시경 함흥부황금정(黃金町)일정목에서 함흥서 사법게 형사대가포위하야 청년한명을 검거하야동서에 류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그를취조함에따라 자백한바를보면 본적을 강원도이천군(伊川郡)에두고 일정한 거주도업시 금년오월경부터 영흥(永興)이북 단천(端川)까지 사이로 횡행하면서 학교전문으로 절도를 계속하야왓다고하는데 현재판명되기만 이십여건에 근 천여원의 거액에 달한다고 하는데 취조에따라 더욱그피해가 확대될뜻하며 희세의 학교전문절도혐의자로 오래전부터 수배중인괴한이라고한다

待望의"至急電話" 二十三日에抽籤

申請者八千을四千으로嚴選

그中五百個만架設

금년삼월에 지급전화가설희망자를 수리한결과 경성전화국(京城電話局)에서는 팔천여명에나 달하엿는데 체신국에서는 예산관계로 그전부의 희망에응할수 업는 형편이므로 오백개만을우선추첨으로써 가설하기로 결정하엿다 그런데추첨에 들자격자는 엄밀히 선택한결과 신입자팔천여명가운대에서 그반수인사천명가량을 뽑아서 오는이십삼일오전아홉시에 경성중앙전화국에서 신문긔자단공직자의 참관립회하에 엄정히、제비를뽑기로 되엿다

준비의 관계로 가설공사는 십일월중에 시작하게되리라한다

어비슨氏夫人永眠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에잇는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世醫專)를 설립한 어비슨씨의 부인은 지난십사일 미주(米洲)자택에서장서하엿다고 십오일아침 전과하교로 입전이 잇섯다고한다 그런데 형년칠십오세이라고한다

映畫取締緩和를 配給業組合에서陳情

統制旋風에打擊이多大타고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영화배급조합(朝鮮內外映畫配給業組合)에서는 업자의 생명선인 영화취체규측완화(映畫取締規則緩和)에관하야 지난삼십일일 총독부관계 당국을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바 잇섯다는데 취체당국의 수뇌부가일신된오날 이문제의 귀취는자못 주목되는바라고하며 사건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이러하다 수년전부터 사회각부문에 물기시작한 통제선풍(統制旋風)은 마침내 사상통제(思想統制)에까지 밋치엿스니 대중에게 무서운 침투력(滲透力)을가지고잇는 영화(映畫)를통제권(統制圈)밧게둘수는업다 여긔에착안한 취체당국에서는 상영하는영화의 취체규측을제정하고 이것을 삼긔로난호아 통제하기로 되엿스니 제일긔인 소화구년구월부터 십년십이월까지는 양화(洋畫)넷에 일본영화하나 제이긔인 십일년일월부터 십이월까지는 그비례를 삼대일로 제삼긔인 명년일월부터는 절반식으로하라는것이다

조선내각지에잇는 구십칠개의 영화상설관에서는 이때까지 다대한 희생을 치어가면서 이규측에 복종하여 왓스나 만일당국이 예정방침대로 명년초부터 양화와 일본영화를 절반식 상영하게된다면 엇지는 관객의 격감으로 인하야 치명적타격을 바들것은 지금 영화"팬"의취향(趣向)으로보아 명확한사실임으로 전국조합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저하야 지난 칠월삼일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 제일회협의를 한이래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듭하야 이와가티 진정한것이라고한다

水王産婦人

新凉의好節마저 스포ー츠大페이젠트

朝鮮體育會主催運動界總動員

第十七回綜合競技

스포ー츠조선의『올림피아ー드』제십칠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全朝鮮綜合競技大會)는 오는시월상순에열리는 륙상경기(陸上競技)、씨름、롱구(籠球)、권투(拳鬪)、검도(劍道)、유도(柔道)、야구(野球)、정구(庭球)、력기(力技)、럭비、축구(蹴球)등열두종목의 경기를 사흘동안에 완료할예정인데 주최측인조선체육회에서는 그규정을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陸上競技 日時 十月三日正午 場所 京城運動場 申請期限 九月三十日下 本會館內 參加規定 一人三種目 릴레此限에不在 參加金 一人 三十錢 種目 百米 千五百米 圓盤 高障碍 瑞典繼走 二百米 萬米 走高跳 低障碍 四百米 砲丸 走幅跳 棒高跳 八百米 投槍 三段跳 함머 其外五千米及中等對校릴레이는 (四百、八百、[illegible]百)追後發表

申請期限 十月二日午後五時 抽籤日 十月二日午後七時 參加規定 中等部、專門部、一般部選手十人監督一人 參加金 中學部 三圓 專門部 一般部各五圓

▲씨름 日時 十月十七日 午前十時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限 十月十二日下午五時 抽籤日 十月十二日下午七時 參加規定 中等對校에限함 選手五人 候補二人 監督一人 參加金 三圓

▲卓球 日時 十月十八日午前十時 場所 府民館中講堂 申請期限 十月十二日下午五時 參加規定 個人戰에限함 參加金 三十錢

▲拳鬪 日時 十月十六、七、八日(三日間)下午六時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限 十月十日午後五時까지 計體量 十月十五日午後六時東洋拳鬪協會(水標町) 參加金 五十錢 競技種目 플라이 빤탐 페더 라이트 웰터級

▲劍道 日時 十月二十三日午後六時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限 十月十六日午後五時까지 參加規定 個人戰 參加金 三十錢

▲柔道 日時 十月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限 十月十六日午後五時까지 參加規定 四級以上三段까지各道場의 資格者로함 每團體에七人以內 參加金 三十錢

▲野球 日時 十月二十四日午後 場所 京城運動場 申請期限 十月二十日 抽籤日 十月二十日 參加規定 一般部 選手九人 候補三人 監督一人 參加金 五圓

▲庭球 日時 十月二十五日午前十時 場所 京城運動場 申請期限 十月二十日午後五時 抽籤日 十月二十日午後七時 參加規定 中等部 專門部 選手三組 候補一組 監督一人 參加金 三圓 專門部五圓

▲力技 日時 十月二十五日午後六時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限 十月二十日午後五時 計體量 十月二十四日午後七時中央體育研究所內 參加金 三十錢

▲럭비 日時 十月三十一日十一月一日 場所 京城運動場 申請期限 十月二十六日午後五時 抽籤日 同日午後七時 參加規定 中學部 參加人數 二十人以內 參加金 三圓

▲蹴球 日時 十月三十一日 十一月一日 二日 三日(四日間) 場所 京城運動場 申請期限 十月二十六日午後五時 抽籤日 十月二十六日午後七時 本會館內 參加規定 中學部 專門部 一般部 參加人數 選手十一人 候補三人 監督一人 參加金 中等部三圓 專門部一般部 各五圓

廿二日(期日變更)의決戰압두고 徐君相對者入京

宋、金兩君鬪志滿滿

권투조선의 용명을 세계에자랑한 수훈자(殊勳者)서정권(徐廷權)군의 설욕권투전은 본사후원아래 이십이일 (예정한이십오일을변경)오후 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폭발적인기속에 열리게 되엿다 이에서군을 상대로 일대격전을전개할 송기완(宋基完)(링네임左右田)은 큐우 김기종(金基鍾)(링네임眞田)군과함께 마네저귀전(龜田)씨인솔아래 십륙일 아침에입경하야 황금정정강려관(靜岡旅館)에 투숙하엿는데 일행은동양권투회사범 황을수(黃乙秀)씨안내로 본사를방문하엿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기종선수 귀전마네저、송기원선수)

宋基完君 談

서정권군과는 일차대전하야판정으로 이겻스나 이번서군의 조선에래함한것은 무엇보담도 고향의링이 그리웟기때문입니다 상대자 서군의결심도 굿겟지만 저는타향에서 련마한미숙한기술이나마 이땅에와서한껏발휘하야 이번 향토에서의 제일전에 서군을 기여코 KO 시킬결심을 품고잇습니다

金基鍾君 談

나의상대자 심상옥(沈相玉)군의비범한 핵니과 투지만만하다는말은 벌서부터듯고 나여시향토에서의 제일전에 호적수(好敵手)를 만난감이잇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적은 삼십오전삼십승오패의 전적입니다 작년정월에는 굿혹구(堀口)선수와 명고옥에서 팔회전을 행하야 무승부로마치엇습니다 현재는 제주도(濟州島)이고 출생지 명고옥 약전에 재학중입니다

十九、二十兩日擧行 藥專主催中等庭球

京城藥學專門學校主催의 全朝鮮中等學校庭球選手權大會는 來十九日(午後一時)二十日(午前九時)의兩日間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열기로 되엿다한다

對西洋人硬式庭球戰

西洋人對朝鮮人 硬式庭球戰이來十九日午後二時부터 貞洞西洋人「유니온」俱樂部「코ー트」에서 열릴터이라는데 朝鮮人側의 陣容은다음과갓다

朴泰華 李法鉻 羅福健 車相達 閔瑗植 金永成 姜樂遠 姜[illegible]

運動界人事·集會

▲朝鮮蹴球協會理事會는 今十六日 午後六時부터 貫鐵町百合園에서 開催

▲崇實專門校蹴球團一行八名은學生蹴球大會에出戰次로 監督朴永哲氏 引率下에 今十六日午後九時五十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太平通奉三旅館에投宿豫定

▲松都高普蹴球團一行七名은 監督鄭和國氏引率下에 十六日入京 貫鐵町信行旅館에 投宿

麥酒窃盜被捉

삼청정(三淸町)일백이십이번지 박병하(朴炳夏)(二二)는 절도혐의로 본정서에 인치되엿다 그는작년이래 남대문통(南大門通) 기린맥주회사(麥酒會社)에 배달인부로 고용사리하고 잇든동안 약십회에나누어서 그회사창고(倉庫)에서 맥주를한궤 두궤씩 훔처서는 화천정(和泉町)김주호(金周鎬)외 여러사람에 파라먹엇다한다 그피해액은 약륙십여원이라한다

沈薰氏長逝

十七日永訣式

소설가 심훈(沈薰=本名大燮)씨는 장질부사로 그동안 대학병원에 입원중이든바 십륙일오전여덜시경에 동병원내서 영면하엿다한다 씨는방년 삼십륙세의 짧은일생이엿고 소생은 삼남매가 잇다한다

그리고 영결식은 오는십칠일 오후네시반에 대학병원에서 거행한후 홍제원 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하엿다한다

(사진은 심훈씨)

吳小坡揮毫 收入은水害救濟

녀류서화가로 이름이잇는 소파 오효원(小坡吳孝媛)녀사는 이번 삼남지방의 수해리재민들을 위하여 오는십칠일 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사이에 총독부제일식당에서 자선휘호즉매회(慈善揮毫即賣會)를 열기로되엿다는데、만약당일에 림장 못하는 이은 창신정(昌信町)백삼십세번지 상신일호 여사의자택으로 알리면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그리여 보내리라한다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樺太와北海道의西岸에잇다 不連續線은 東支那海南部로부터 九州 瀨戶內海 關東地方 中部를經하야 東北地方의東海上에 달려잇다 高氣壓은 揚子江流域에 七六〇미리를보이고잇스며 그로부터 氣壓은漸漸低下하고잇다 滿洲와朝鮮은晴 朝鮮海峽은曇 裏日本及北海道는雨 表日本은晴 半島의氣溫은 昨朝부터 七度가低下하엿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 晴 一時曇 明日도同

昨日最高 二二度八 同 最低 一五度五 今朝最低 一二度三 正午溫度 二一度一

高速度 補血強壯劑

蔘 삼 茸 용 精 정

登山의가을을!

지금은 가을! 服藥의 가을!

여름철더위와지리한 장마에지친몸을恢復식혀야할가을은왓다 이때를일치말고時刻을다투어라 服藥의첫가을을!

國內들에는黃金물결이 출렁거리고 뒷산에는붉은丹楓이수노와진가을 시원한한모금의바람을마시면서거러가는 가을의登山 여기에서우리는힘을엇는것이며 大自然의惠澤을맛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服藥者의게큰援助를주는것이라하겟다 그러면

어던補藥을選擇 할것인가 勿論補藥도 그數가넘우만흐며 誇張된宣傳을하고잇스나 그效力이如實치못하다는것은누구나다―부르짓는바이다

다만三尺童子라도能히認識할수잇는人蔘과鹿茸이것뿐만은

靈山白頭山의精氣 를타고난 우리朝鮮사람에게 하나요들이아닌絶大最適의補材라하지안을자 누구이랴 藥始皇의不死藥도이것이며 神農氏의遺藥도이것입니다 그러나 다가튼 蔘茸製劑라할지라도 그調製如何에잇서서 그奏效力이다른것이니 果然現下醫藥界의革命兒이며 旭日昇天가티 나타난것이고蔘茸精이다

蔘茸精의特長을보라 이蔘茸精은 人蔘과鹿茸의精分을 最新藥化學的方法으로써 露出配合한外에 有機鐵分等數種의 高貴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한지라如何한體質에나맛지안는일이업스며 病弱者나 健康者나 男女나老幼를勿論하고 한번服用하면 顯著한效果를보지안는이업스니 苦熱에疲勞衰弱한몸을恢復식히기爲하여 病後虛弱한몸을爲하야 姙娠婦를爲하야 榮養不良兒를爲하야 或은肺結核患者나 神經衰弱者나 陽氣不足者를爲하야 斷然히멋고推奬하기를勸하는바이다

鮮滿有名藥店販賣

發賣元 京城授恩町三二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番

あなたの眼を

당신의눈을安全地帶로!

安全地帶に!

眼疾防止의安全地帶
는「스마일」의活用으로
곳完成합시다!

スマイル

스마일

눈을保護하고視力을强하게하는

中村眼科院長 醫學博士 中村辰之助先生
醫學博士 仁藤 睦作先生 御推奬

하로의繁雜한執務工夫를마친뒤에 마음노코한거름거러街頭로나가면 忽然히展開하는交通地獄! 어一事가現代生活에잇서서眼目의役割을 雄辯하는거십니다

人間의活動은八〇%以上眼目에支配되여서貴下의眼目은不絕히極度의緊張을要求하고이씀니다。스마일의常用에依한完璧한視力의確保가必要합니다

結膜炎(돌님눈) 角膜炎(진안질)
充血(血目 삼눈) 도라홈
眼精疲勞(疲勞眼) 眼瞼炎(爛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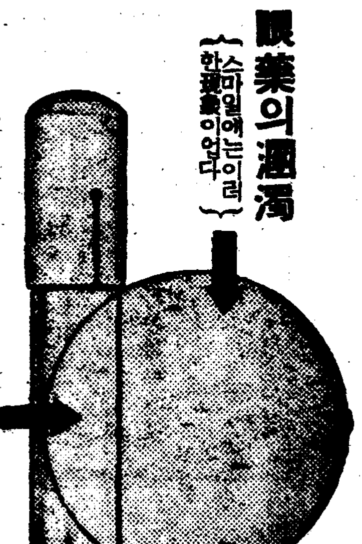
(定價) 廿五錢・四十五錢・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다

스 마일의자랑은爲先其配劑의淸新한거십니다。舊套를脫한近代科學에다가完成된新眼科藥의奏効는둘도업는新鮮하고도潑剌한거십니다。不快한諸種의眼疾은「스마일」의點眼을 一日數回式繰替함으로써爽快하게消退합니다。

눈 이疲困하야술때의「스마일」點眼도 또한이술수업는爽快한感銘을줌니다。컬컬한눈과、시울든눈이霧散하야視力을快適하게恢復케합니다。事務家、學生에게日常坐臥、「스마일」을이저버리지안는所以입니다。更히「스마일」의 美眼作用은너무나도有名한얼입니다。

스 마일의容器는特히藥液에浸潤되지안는硬質硝子及「구쯔다벨카」의口栓을 使用하고잇씀니다 一般眼科藥이普通硝子容器가되거때문에藥液中에「아루가리」의游離를볼수잇스며挾雜物混入함에反하야「마일」의容器는硬質硝子를、口栓도不溶解性의「구쯔다벨카」를 使用하야이쓰무로써 그憂慮도업고 恒常爽快한澄明度를保持할수이씀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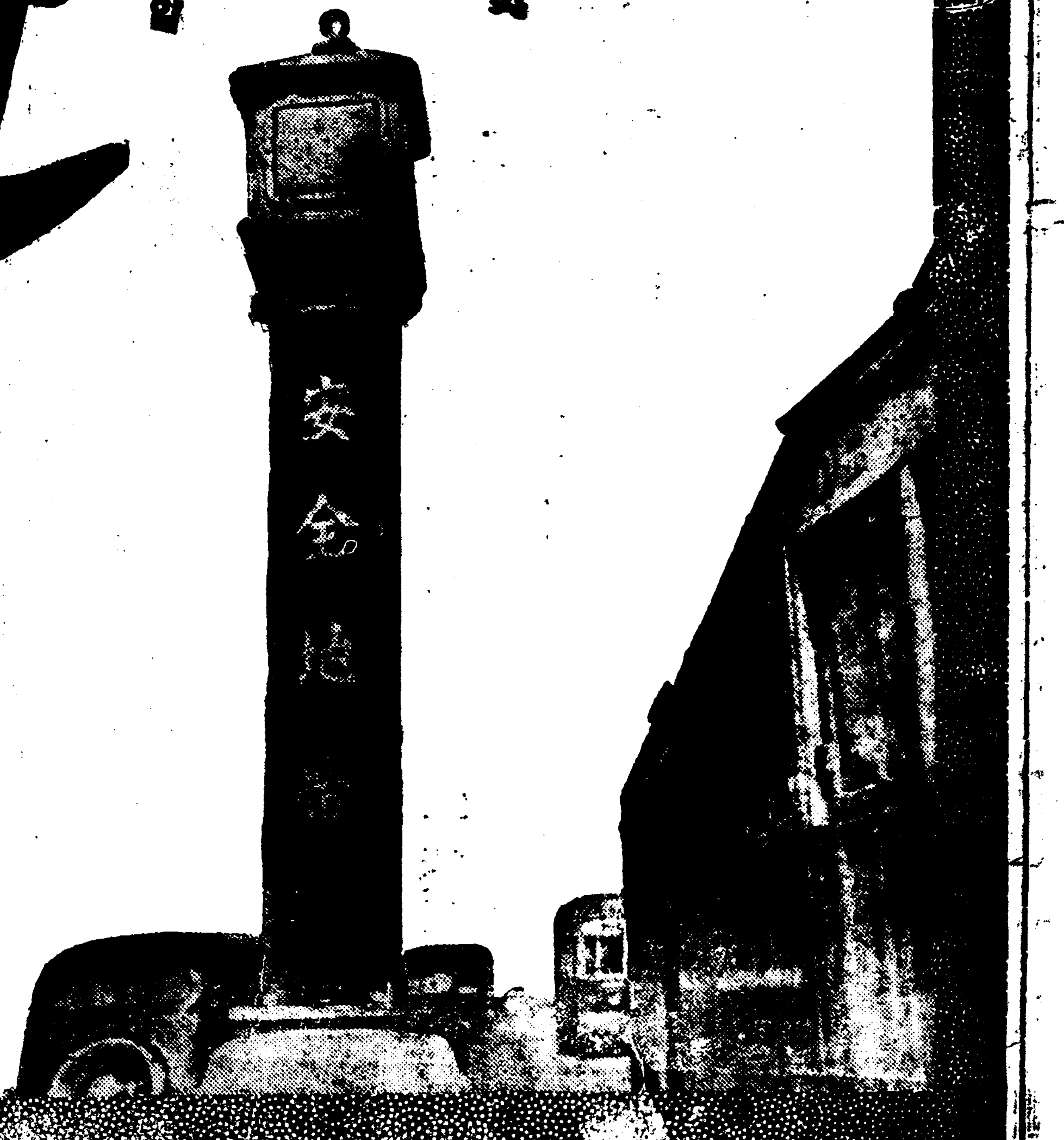
眼藥의混濁
(스마일에는이러한混濁이업다)



絕對澄明度를保持하는스마일

스마일의 點眼하는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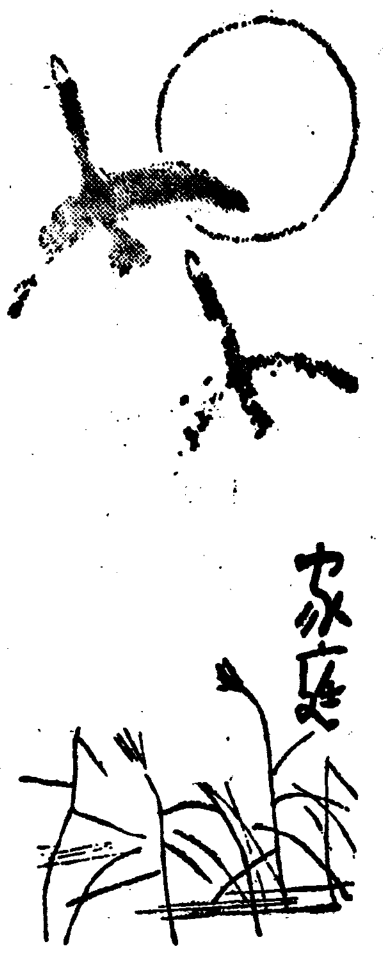
銀色두껑을떼고、容器를垂直으로눈에닷지안케쥐고、末端을손끗트로輕하게두들기면、一滴!一滴!爽快하게點眼된다 點眼할대容器를ㄲ에대이면눈물이瓶으로드러가온즉特히注意하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大阪

로보트의 하소연

침착한태도로 군중을 바라보며 자못 정중한목소리로「만장의 숙녀、신사제위!」「피차ー스」씨가발명한 인조인간(人造人間)「에렉ー트」이 가락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말을 했을지 그야모르지만 자기의속마음을 실정대로 폭로해서보지는 못했을것입니다 정작보다 이지요。「여러분은 나를 꼭 여러분과가튼 인간으로 맨드러볼라고애를 쓰시지요。나에게정저정신(精神)이라는것을 주기전에는 당신네 희망은 허사가될것입니다。그건 도저히바랄수업드라도 나의 외양부터 당신네와가티 해주시요。왜 내얼굴는 철판으로 멸실하듯해노흐셧소 그리고 못실까지했스니 이무슨 악착한 짓이요。나를 지극히 사랑해주시고 나를 꼭 당신네와가티 역여주시요 그런때가 도라오면 나도 얼굴을 부드럽게 펴고 봄노래와 웃음을 띄운나조로 당신게 안기오리다。」이런소리를 왜 못해봅니까 (사진은「에렉ー트」)



家庭

옷은 자조 바람을쏘이자

여름새는엇더케챙길까

여름도 다가고 이제부터 가을옷입을때가 도라왓습니다 여름동안 입든옷은 깨끗이빨라 잘챙겨두어야될터인데 좀이안쓰시게 옷안상하게 간수하는법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바람을쏘여서

입든새를 널기위하야 방이나 마루에 적당한간격을 두어줄을 여러개맨뒤에 옷은것보다 솜녀흔옷거트로가게해가지고 너릅니다 특별한옷 귀중한옷은양복거리나 회사대에거듭때르도록해도 좃습니다。방이나마루는 볏이드러죄이지안는 바람잘통하는곳으로 선택하시지요 해볏에 죽접쏘이는것은옷을소독하는의미에서 효과이지할봅니다 볏에쪼이면 옷이 끄러벗이 변할염려가잇습니다 시간은 오전아홉시로부터 오후세시경까지가 적당하며 저녁때가되면 공긔에 습긔가만허저 자미업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떼떼운자리는 그것을께끗이 빨다음에 별도로하시지요。

옷을너는동시에 의장속、상자속도 깨끗이소제하야 바람을쏘여두지안흐면 좀의알이나 마잇서 기껏옷을 쏘여제거너온뒤에라도 못아니한 피해를보게됩니다。

잘간수하는법

옷을 말린뒤에 장속이나 상자에너흘때는 먼저신문지를 두서너장깔고 그우에좀이업는 흰보재기를 또깝니다。그리고 옷을 접어넛는법은 바람에쏘인뒤에 다림질을해서 챙길자리에 드러갈만큼 되도록 넓게 크게접고 접힌자리에는나종에 주름이 깨잡히지안토록 하기위해야 조히를 둘둘마라 접힌구석에 끼워 둡니다 그래야옷이구겨지지도안코 나종에입을때 새삼스리다릴필요도업게됩니다。

그리고는 방충제(防虫劑)를 넛는데 방충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잇서 장뇌제가됩니다만 아직까지 제일조타고할만한것은「바라지크롤」、뱀쏠이라고하니 이것으로맨든약은 약방에무러보시면 구하실수잇슬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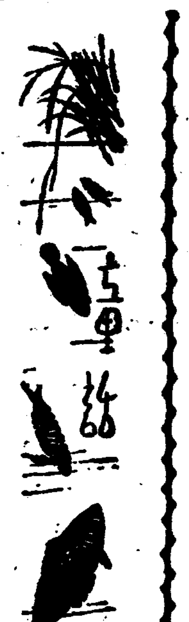
옷감에따라서

그다음 옷감에따라 간수하는법이 다소달라질것입니다 무명옷이나 베옷은 좀이잘쏘지안는대신 곰팡이가 피기쉬운즉 좀약을쓰지말고 방충제만 너어두되 바람잘통하는곳에 두어야합니다。

비단옷도 비교적 벌레가쏘지안흐나 때가무든대로 너어두면 그자리를 벌레가 쏘와버립니다 그럼으로 미리때무든자리를 깨끄시한다음 다림질을해서 챙기십시요 챙기는법은 먼저말슴한바와 갓고비단옷을싸서 챙길때는 좀끼업는보재기에싸고 그안에 방충제를 너어둡시요

그다음은 모직물인 양복이나 외투가튼 털로짠옷은 좀이잘쏩니다 그럼으로 밧드시 바람에쏘인뒤에 다림질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신문지、한가지식따로싸서 두어야합니다 물론 방충제를 너어야합니다。

어쨋든 안입는옷이라도 일년에 몃번식바람을 쏘여야합니다。



이야기 능청스런독거비

徐幼亭

떠뜻한 봄날 이엇습니다。마을압 모시자리 들고 엄매는 남생이、개고리、독거비、가물치 이 네친구들이모혀 안저서 재주를 제가 앙전하다는자랑으로 떠들석한 판이엇습니다「그래치만 제아모리 앙전한군도 술만 먹으면 그만 미추갱이가 되다말아야」하고 개고리친구가 톡 불거진 두눈을 끔적 끔적 하면서 이말을 내노흐니 모다들「알그래치술에는 앙전이 업서」「그래치」「그래」「그래」하면서 제각금 유식한 소리를 한마듸식 내노왓습니다。

「술이란 천하에 고약한거야。한번 취하고 보면 인사도 의리도 다 업서지거든、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술취한건 죽는거나 갓다고해서 취생(醉生)자는 죽을「주」자를 부처서 썻든 모양이야」

「암、그래치 술잔이란놈은 자를 보게나 술먹으면 우리히사온다고해서 그릇명「두」에다 창이라는뜻「주」자를 두게 을려 노치 안앗나?」

「그래그래「主」자는 어데루 술잔은 그릇이 아니라고 아니「주」자를 울리노왓거든」

세친구가 이러케 떠드는데 독거비친구는 머엉하니 듯고만 안젓더니 엄숙한 입을벌리며

「나는 유식하질 못해서 자세한지는 몰것네만은 술취한사람은 아주 사람으로 치지도 안코「어느술먹은 개가아니냐 내버려 둬라」는소리를 풀어내、제몬 되러서 술을먹고 번번한사람이 웨 개가되는것인가、이따위술을 먹을 는못난놈이 먹는답」

「누가제정을 못먹는냐 는 하엿습니다。이래서 이야기는 더 도락갓습니다。

「나는 술이라고는 이름도 모르디겨」하고 가물치가 재헌에는 비로 제겨제일 술을 못먹는다는 하엿습니다。

독이 세째한 낫작을 처들면서「나는 술은 고사하고 술범숫도 하게 생긴것도 입술에대본적이업네」

하니그말이제떠러지기가 무섭게 개고리가 속나섯습니다。

「흥흥! 여보게 말말게 오직해서 내가 먼저 술애기를 내놋겟나 나는 술커녕 누룩 한 보아도 정신이 핑핑 돌때 만할 누룩 냄새를 맛기만하면 그만 아주 쓰러저서 누추가 되어버리네」

하고는 이말하면 나보다 미술을 못한는놈이 잇겟느냐는듯이 뽐을 얼마든지 해보라 하는듯 처들고 눈을 소리 하엿습니다。

목아지가 잘룩한 남생이친구도 지기는실여서

「뭐? 자내는 누룩만 보아도정신이 핑핑돈다가?이사람아나는어쩌다가 밀밧테를 가면업풀이 그만 연시감이 되고원 몸이 화근 화근 달어서 견딜수가 업데 아이구 그놈의 누룩을 만든다는 그 밀밧해를 내생전에 꿈에라도 한번 빠 가질까 무서워서 점이 빠릿 빠릿 나네」

하면서 고개를 살살내 흔드럿습니다。

이러케 이애기들을 하다가보니 아까 까지도 우둑허니 안저서 떠드는 소리를 듯고만 잇든 독거비가 별안간 뒤로 벌떡 쓰러저서 허연 배때기를 내놋는것이엇습니다。

「여보게 독거비!독거비? 자네 어거 웬일인가 응?」

하면서 세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어깨를 붓드러서 이르켜안처노니 독거비는 도루 뒤쓰러지면서

「어이구 취해……여보게들 그 애기를 좀 그만둬 자네들이 술이니 누룩이니 밀이니 하는 고물 떠드는 소리에 그만나는 취해서 이지경 일세 제발 좀 그만 둬주게」

하면서 능청스럽게 그 멀장한 손을 내젓는데 세친구들은 한 두 어이가 업서서 하늘을 처다 보면서 헛우슴을 한바탕 하고 말엇다。

女人劇의밤

主催 京城Y・W・C・A、職業女性俱樂部

「낸의 悲劇」 쫀・메이스필드 作 朴龍喆 譯

—配役—

개퍼ー 李宜熙　퍼氏ー 李楨部
되손ー 林命順　퍼夫人ー 兪貞淑
아ー러ー 李良淑　덕ー 張永淑
쫑ー 孫鍚姬　제니ー 兪炳熹
드룩ー 朴鳳子　낸ー 金甲順

時日 九月廿二日밤七時半
場所 府民館
會費 四十五錢(學生二十錢)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창호부터 정해야

깨끗고 시원한 가을맛이 난다

이왕같아바를 바엔 요새가 제철 구시월은 넘어느진것

조선서는 음력구시월 쯤해서라가 나물 묵은이나 도물 새로 바릅니다만은 이왕 새로 바를바에 좀 째일적이 청명그릇에를 발님 바르는 것판 갓지 못합니다。방바를 계절로 해고 벼리올라로 벽에를 창호를 그대로 두고서 가을 다 지나버린다면 밝고 깨끗한 가을의 해빛이 얼마나 운치잇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그런데 곰팡바른 것이 그다지 어려운 기술도 필것도 업스려면 외외로 바를줄 모르시는 분이 만습니다。미구나 아마네들은 바느질이바른지 질을 잘하시면서도 창호지나 귀엽은 예쁘려는에 머시지도 안습니다。그래서야 쓰닛가? 그럼 일로 좀 해 보시는 것이어떠한닛가?

조선서 풍을 바르는 창호지에로는 풍선지(奉仙紙)와 삼첩지(三疊紙)의 두 종류가 잇스나 풍선지는 희고 보드러운대신에 삼첩지는 누르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발코노서는 좋은 삼첩지 봄에 풍선지가 보기 조치요한은 조용한 비도 미처 나가서 바르기가 여간 힘들지 안습니다。대체로 풍선지가 찻과 미닫이에는 풍선지가 조코 명문에는 삼첩지가조흐나 새로 지어거나 정하게 기두지 못하야 시키며 코 지저분해진 창호에는 들창、미다지까지도 풍선지보담 삼첩지가 오히려더어울립니다。그리고 큰데는맛 문을 양지나 글도리지로바르는 데도 드물지 안한 모양이로되 그것은 그다지 경제가 되는 것도 아니겟고 좋연히 보기만 숭업게 됩니다。

바르는방법

(一) 창호지를 사다가는 위선 도련을 해야 합니다

(二) 그다음 창호를 각각 그틀에 마처서 마름질을 해둡니다。

(三) 그다음 벽에 풀을 조리를 위해 한번 풀을 미리 한 줄 미리 쑤어 두었다가 조금 식혀서 하면 보기가 깨끗하게 됩니다。

(四) 조히가 잘 붓게하기위하야 풀칠을 하는때 보통 쓰는 가 풀에 명반을 조금 너흐면 더 잘 붓습니다。

(五) 도련해논 조히를 쭉 퍼놋고

(六) 풀칠 한 뒤에 그것을 발라야 합니다。

(七) 그리고는 솔로 쓸어 줍니다

(一) 마른후 조히는 창 마저 바를 그 잘 꺼지지말고 팽팽하게 됩니다。

(二) 물을 한 사발쯤에 백반 조금 녹혀 두엇다가 물을 뿜어 곳에 발라둡니다。

(三) 벽에는 색깔 조곰 섞거노흐면 보기도 좋고 방도 밝아집니다。

(四) 조히가 버지거나 찢어진 데는 가로 조 각을 발라버립니다。

(五) 창틀을 녹여 무엇 대고 그것을 굽게 펴 노흐면 문도 잘 닷기고 보기도 좋습니다。

소슬한가을밤을 울며새는벌레들

고히잡아다가 집에서울려봅시다

기띠가는 가을밤── 허러진 뜰창으로 부러든 달비치 새어들고── 마루구석 축도리미레서는 벌레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네의 생활가운데 낙은 얼마 하더라도 그래도 윤태한 그무엇이 잇고 여유잇는 정호가 가을이라면、거칠고 따분한우리네의 정신을 부드럽게하고 위로하여주는 시절도 가을 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가을 벌레는 대체 무엇때문에 그다지 정성스럽게 울어주는것일까요 무엇을어이지 듯시일고 십습니다 얼는 못기에는 한목종류가 우는것가려도 종퉁히 들어보면 벌목조화 소리가 한껏합처서한 곡조를 이루고 잇습니다。

벌레의 사는곳이 각각 다른것과 가티 그 소리도 가지 각색이외다 방울벌레는 조금도 벌레가 나는 백리 나무뿌리가투른데 잇습니다。비는 벌레가 조화하고 불만보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조롱주위에 풀조롱을 엮게들고 버레우는곳에 가까이 가면 제절로 모여드려 좋습니다

여치는 몸집이크고 소리가을 장하므로 잘잡아 보기쉬웁니다 이것도 조롱을 켜들고가서 그낭손으로 잡을수잇는것입니다

귀뚜람이는 여러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그러나 우는소리가 귤는 이 풀속을 뒤여보면 그만 뛰여나오므로 잡기가 쉬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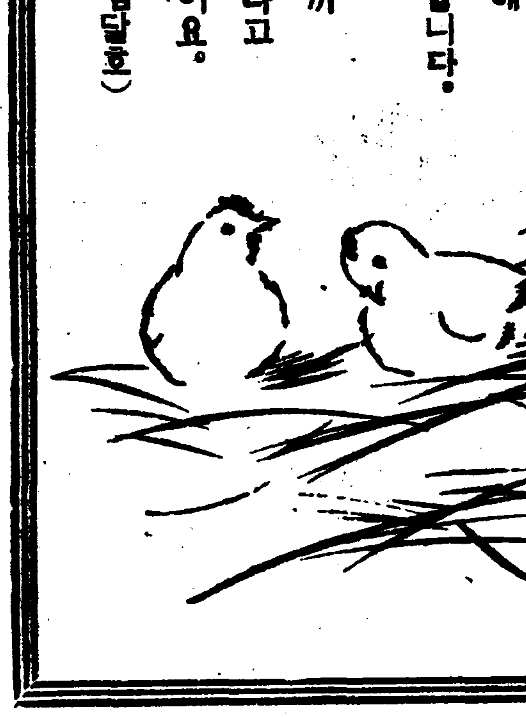
이리하야 여러가지 버레를 잡엇거던 그것을기르는법도 한번 아려두어야합니다。

통에 너허두고 기를때는 푸성귀가튼것을 잘게 써러서 끈넘어시 먹이고 방울여치와 귀뚜람이는 푸성귀우에 모기가튼 것을 잡어먹이는것도 좃습니다 그외에 실과씨를깨트려먹이는 것도 조코 수박속과 배추입사귀 가튼것도 좃습니다 버레는 해빗조이는곳에는 절대로 두지 안토록하며 습기를 조화하는것이니 축축한데를 골라서 두되 일부러 물을 뿌려주는것은 못씁니다 종이에너치안코 유리병가튼 데나 감자스괴가튼데 너허서도 기를수가잇는데 밋바닥에 붉은흙을 두치가량깔고 웃뚝경은얼 분형접으로 공기가잘 통케터 두어야합니다。

병아리

팔ー짝 소르르
해벼치 따뜻해
병아리가 조읍니다。
바람이 부니까
간즈리지 말라고
살며ー시 깨어요。

(공주사립 엄달호)



치조농루증

問 저는금년서른세살의 주부로서 처녀때부터 치장이질어지어 가장심하야 잇기하지 낫치안습니다 봄부터 정치러 지 금월이 점점 심해져 치근이들어나라하오며 때때로 으린한이 잇아 쪼아 작년 이때에는 치통이심하야 처과견문의의가 문의하온바 빨아야한다하야 ...

答 당신의병녕에 제일만히보는례올시다 띄구나선천적으로량친게서도 치아가 조치안으시다하니 틀림업시 선척적(先天的)으로온 치조농루증으로 볼수밧게는업습니다 어는점으로보든지 먼저치석을 깨끗이 제거한다음 좌긔에 약을사용하야보시요、

리바놀ー 〇、二
네오살발산 〇、三
와세린 一〇、〇

一日二三回齒齦塗布摩擦 (世富蘭偲醫專 金基龍)

개를빼엿습니다 매일아친마다치마게에 권위잇는 치마분과치술로이는다그나 증세는머지지안흐니 평소에 어떠한섭양법이 조흔지 현명하신선생님의 자세한 하교를 업드여바라나이다 (공강에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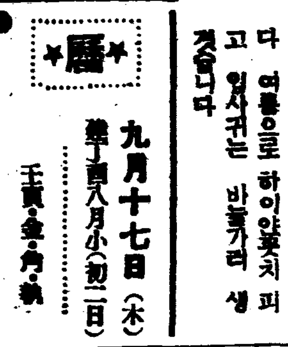
귀뚱냥

쌀버레 안꾀이게하는법

쌀속에 버레가 잇서 도모지어떠케 할도리가 업다고하지말고 쌀뒤지속에 남족(南燭)나무잎사귀를 너허주면 버레는 절대로 잇지안습니다 남족나무는 정원가튼데 심어두는 상록수입니다 여름으로 하이얀꼿치 피고 잎사귀는 바늘가러 생겻습니다

曆

九月十七日 (木)
丙子舊八月小(初二日)
壬寅・金・角・執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참으로잘듯는 해열제
元祖 竹村 돈뿌구
더운砂糖湯에녹여먹으면 곳 氣分이爽快

利比兒 루ー베리 優秀治淋藥

本劑의特徵

一、腸粘膜에서吸收를速히하야服藥翌朝尿를藍色으로變하야强한リベール냄새를내면서排出하야이때는벌서快感을느긴다

一、尿道를侵犯하고잇든無數한徵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이殺菌性尿에依하야體外에排出된다따라서濃이업서지고苦痛도消散한다

一、藥効를確實히알라면リベール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顯微鏡으로比較檢査하는것이速한法으로服藥後에每日每日徵菌이업서저가는現象을볼수가잇다

藥의選擇을그르치지마라

單味의白檀油球와바루삼球及在來의治淋藥等은만흔境遇에四五日間連用하야도곳藥이익어서其後암만服用하여도容態에變化가업시如前히白色粘液을分泌하는特製リベール의製劑에苦心硏究한것은오직이點뿐이다今日世界的으로リベール의需要가激增하고各國의市場에잇서서도亦是絕大의信用을博得하고盛히實用되여只今은輸出先이二十餘個國에미치는것도其効果가特히優秀한까닭이다

警告

自家尿道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徵菌을逆으로속에드려보내서膀胱炎을이르키거나睪丸炎에걸려서大端히後悔하는사람이만타斷然嚴禁하여야한다決코他藥에迷惑치말고優秀治淋藥으로서信用할만한特製リベール를반듯이指名하시라內地滿洲國海外到處藥店에서販賣한다萬一品切時는本舖에서直送함(送料不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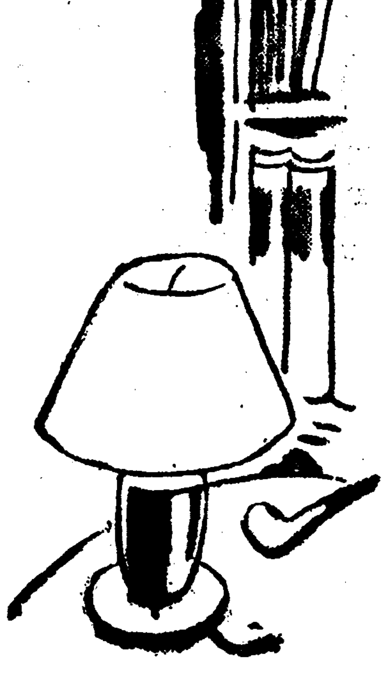
定價 一週間 二圓 十五日間 三圓五十錢
七日分 三圓 廿七日 十圓

本舖 竹村製劑所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

學藝

一批判과中傷一
最近의批評的傾向 (二)

白 鐵



一個의 批評이 正當하게 展開되는 境遇에는 그批判對象에 對하야 短點을 指摘批判하는同時에 長點을 無視하지안코 發展시켜가는곳에 그批判者의 人格의厚意와 親切이 잇슴을아니라 文學의 發展이라는 全體의 利益이 實現될것이어늘 最近에橫行하는 批評은 그러한批評의 性質을 不顧하고 [illegible]

立

[illegible]

文

[illegible]

또한 近間에 朴英熙君이 李甲基君等에 對한論戰까지를 全面的으로 否認하랴는 [illegible] 自身의 問題에만 限하거니와 最近의 나의論議인 人間探求論에 對한 林和君等의 論戰等을 보면 [illegible] 文이라는것을 看過할수업는것이 [illegible]

果

[illegible]

關

[illegible]

君等이 나의論을 非難하고 내自身을 反動者로 規定하는데 언제나 前面에 例擧하는 文句는 白鐵은 그의「悲哀의誕生」가운데서「文學者는 맑스主義를 포기하라!」는말을 公言햇다는것이다 그들이 언제나 丁寧히 指摘하고 引用하는 이文句에 [illegible] 내自身이엇다 大膽 내가 언제 어데서 이런 言辭를 公言햇든가?

그들의 指摘에 依하야 나는 나의 小論文인「悲哀의誕生」을 一一히 詳論하얏거니와 [illegible]

燈臺의嘆息

白頭山에잇는
昆蟲의分布狀態
● 金 秉 河

[illegible]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現代思惟의 現實的形態
● 金 基 錫

[illegible]

故事論評
逸本再現과三傳
湖 岩

[illegible]

一海山詠草一 (下)
尤菴 梁 桂 東

香山途中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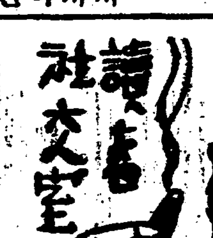
普賢寺韻
[illegible]

(右四首、舊稿若干、今因敗作重參)

「漢詩」
「蓮」一押心
鄭 寅 普 選

佳作三之一
韓 晉 均

朱華胃出曲池深
翠蓋團團輕不沈
映霞錦專開紅帳
浥露香苞綻玉簪
粧凝朝日仙妃降
影幻古臺活佛臨
晩昔嗟無周老愛
中通自是有貴心


讀者社交室

[illegible]

新刊紹介

◆新人文學 十月號 [illegible]

◆共生保育月報 第四號 [illegible]

◆ローマ字 九月號 [illegible]

◆朝鮮文學界 九月號 [illegible]

◆朝鮮商工獎勵新報 第三十二號 [illegible]

新秋를마지한 醫學界의會合들

[illegible]

傳染病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不注意는禁物!
이상타생각되거든 곳アドース錠을

至今이야말로傳染病이流行할季節이다、身體가妙하게 느릿하고食慾이안나고배가 끄륵끄륵울고、泄瀉가개속되고、大便은粘液質이며때로는血液이석기고頭痛惡寒發熱될時에는一刻이라도주저하여서는안된다。

그무서운疫痢、赤痢、코레라、腸질부사等은以上과가튼症狀으로부터始作된다。

이런때에는그냥두지말고、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 アドース錠만服用하면腸內에滯積하엿든有害毒素와、나뿐黴菌을、기치지안코吸取하야無害케하야體外에排出하며體內의消除를합으로써、가장安心하고治療할수잇다。

大體여름은黴菌의繁殖이旺盛하야飮食物이腐敗되기쉬우며또한寢冷으로下痢와腹痛을이르키기쉬움으로豫防과治療에는アドース錠을推奬하는바이다。

糖衣錠 五錠(.10) 五〇錠(.35)
　　　 三〇錠(1.00) 三〇〇錠(五.00)
錠 劑 一〇〇錠(.50) 五〇〇錠(二.00)
　　　 一〇〇〇錠(三.50)

適應症
慢性下痢 腸カタル 食物中毒 胃腸病
急性腸炎 自家中毒 消化不良 [illegible]

アドース錠
아 도 - 스

發賣元 藤澤友吉商店 大阪市道修町・大阪山本町・東京本町・京城府小町

連載野談 薯童記 (二八)

申鼎言 作 金龍超 畵

마룡캐든총각 (三)

이는냐!』

서동이 마를 팔고 집에 돌아와 그어머니를 뫼시고 저녁밥을 먹은뒤 전날과 가티 마를 팔며 다니는동안 보고 들은것을 모두 그어머니께 이야기하야 들려 드렷다.

그리는중 무엇을 어저버렷다가 다시 깨달은듯한 태도로써 그어머니께 향하야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무엇을하셧습니까?』

하고 자긔의 아버지가 무엇을 햇든가를 물엇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자긔똑이 배술하든 사람의 아들이지 장사하든 사람의 아들이지 그런것을 알어보고저 물은것이다.

『별안간에 그것은 왜?』

하고 그어머니는 서동의 묻는 말을 이상히 생각할뿐만 아니라 대답하기가 좋은 거북상스러웟다.

『꼭 일어야만 될일이잇습니다』

하고 서동은 매우 긴급한일이 잇는듯이 서둘엇다.

그어머니는 서동이가 서둘러 대며 캐묻는 통에 더욱 대답하기가 관치한 태도를 짓고서 한참그대로 잇다가

『룡(龍)노릇을 하섯단다!』

하고 서거픈 웃음으로 어룽어룽 대답하얏다.

『룡노릇? 사람이 어떠케 룡노릇을 한니까?』

하고 서동은 너머나 뜻바게말을 들은듯이 눈이는 비출 떠우며 그어머니를 처다보앗다.

『그러기에 너는 비록 집안이 가난하야 마를 캐어 장사를 할지라도 실상은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란다.』

하며 그어머니는 사람으로처어떠케 룡노릇을 하느냐고 뭇든 서동의 말은 똑똑히 대답하야니하고 다만 지체만 조흔 자손이란 말만하얏다.

대저 서동의 어머니가 서동의 뭇든 말에 얻든 대답을못한것은 진실로 똑똑히 대답을 할수없는 이상한 크나큰 까닭이 잇섯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서동이를 처음 밸때에 하도 이상히 별 연고이엇다.

어디뿐냐!

서동의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써 처소에 고요히 누어잇슬때!

별안간 낫지(蓮池)연못을이뤄잡히며 긔이한 향긔가 그연못으로부터 풍겨 나오며 그향긔가 서동의 어머니를 둘러 차는듯하얏다.

『아아, 이상도하지!』

하며 서동어머니는 그연못을바라보며 풍겨오는 그긔이한 향긔를 상쾌히 맛햇다.

그런데 그 깁긔이 뛰는듯하듯 연못속이 갈어앉지며 뛰미처 푸른 룡한머리가 연못 언덕으로 뛰어 올너다.

『아아, 이상도하지, 이상해!』

하며 서동어머니는 일변으로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나고 일변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간절하얏다.

그러나 그룡이 장차 어찌되는가를 보기위하야 무서운 생각을 억지로 참으며 그처룡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엇다.

그런데 그처룡이 룡을 번뒤기어 별안간 천하에 짝이업슬듯한 미남자로 변하얏다.

『아아, 갈수록 이상도하지, 룡이 어떠케 사람이될고?』

하며 서동어머니는 갈수록 이상한 생각과 그미남자의 동정이 궁금하야 방문을 다닷지아니하고 여전히 내다보앗다.

그런데 그미남자는 발을 떼어서슬지아니하고 서동어머니의 방문을 히고도 할스러운손으로 잡엇다.

『아이공 이일을 어쩌해?』

하며 서동어머니는 방문을 안으로 단단히 잡어 끌엇스나당할길이어서 그미남자는 방안으로 들어섯다.

서동어머니는 크게 놀내어서 발을 피하려하엿스나 피할길이 업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을 청하려하엿스나 목이메여 소리도 질으지못하얏다.

그래서 할일업시 그날밤을그미남자와 가티 지내게되엇다.

이때 서동어머니는 그날밤이후부터 웬일인지 서동을 잉태하엿다.

서동어머니는 서동을 이아가러 이상히 탄생한후 서동을열여서살이 되도록 기르든 동안에 아직까지도 그미남자가 파연 룡이엇든가? 사람이엇든가 그룡가를 해석하지못하고잇는 중이엇다.

그럼으로 서동이가 그아버지의 말을 뭇는때 대하야 똑똑한 대답을 얻는못하얏든것이다.

그런데 서동이가 그어머니의 말을 들은뒤에 할으로 어쨋스든 생각이 갓끌하나 어쨋든 지체가 조흔집 자손이란 말에 크게 깃버하는 비출 띄우고그어머니를 향하야

『내가 과연 지체가 조흔집자손이면 내일이 잘되겟습니다.』

하며 장차 큰일이 성공될듯이 말하얏다.

『못슨일이 잘되어!』

하고 그어머니는 궁금한 비출 띄우며 물엇다.

라디오

十六日 (水曜)

◇午後六時 童話『生命水』 金 岡 鎬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夜講座『金剛山植物』 培花女高 李 德 鳳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第二高普 金 雄 珏
◇同八時 (東)管絃樂 近代及現代의音樂(第九回) 組曲『原始時代』…스퀀트作曲 第一部 가、가을졸 나、戰爭 第二部 가、日本의노래 나、禮式의노래 다、파리의세레나―데 라、石拳競技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너코라이 시펠부랏트
◇同八時三〇分 怪談『정업는鬼女』 申 鼎 言
◇同九時 歌詞 一、징軍樂 一、黃龍詞 金 蕉 紅 趙 点 紅 大笒 金 永 根 杖鼓 金 一 宇

第一放送 (波長三〇九米)

◇午後六時 童話 內山 憲堂
◇同六時二五分 講演 石塚 ?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橫溝 光暉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小唄 小唄 幸初 三味線 千代 作
◇同八時四〇分 新日本音樂과尺八獨奏 佐藤共山外
◇同九時(東) 落語 春風亭柳橋

十七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李 ? 一
◇同六時 童話 崇?少年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夜講座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가을에우는벌레』 第二高普 金 雄 珏
◇同八時 京城藝妓歌謠 金 紅 桃 朱 壽 奉
◇同八時二五分 하―프·트리오 崔 順 慶
◇同八時四〇分 배뱅이굿 金 玉 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速成獨語講座(廿五) 野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 (仙)商市實況 白井 竹堂
◇同二時 常識講座 藤井 忠平
◇同六時 (大)連續漫畵劇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座 本多 龍成
◇同七時三〇分 講演 韓 相 龍
◇同八時 (東)淸元 淸元巴榮太夫外
◇同八時二五分 (東)하푸르리오
◇同八時四〇分 (大)勞動民謠 藤堂顯一郎
◇同九時 (東)落語 橘家 圓藏

十八日 (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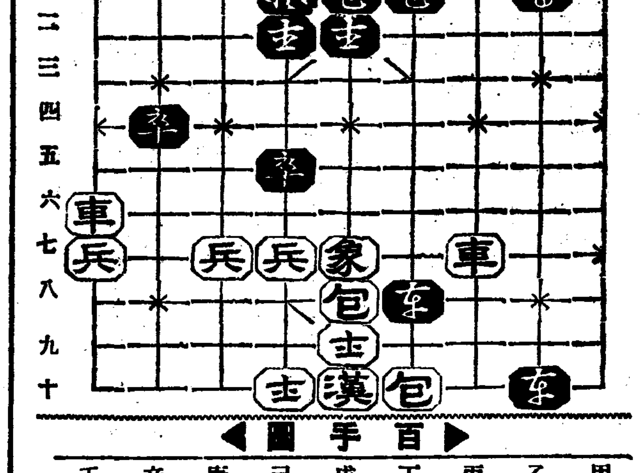
◇午後零時五分 무궁화당실 一、무궁화당실 二、오동동 三、청춘가 四、오봉산 五、금강산타령 細笛 姜 鶴 洙 短簫 金 明 洙 田 紅 桃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한가用家節約합시다』 梨花女高 朱 壽 元
◇同六時 連續兒童劇(一) 『행낭아이』二景 【配役】 順子(主人)……權 ? 玉順(그의동무)……崔英淑 慶伊(同)……朴 ? 翠玉(행낭아이)……朴永熙 泰植(翠玉의오빠)…金小泉 順子의아버지……金 ? 翠玉의아버지……張弘毅 全서방(일꾼)…姜仁奎 京城어린이放送會 指揮 金洛升 效果 金虎俊 音樂 姜俊熙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滿洲事變五週年을當하야』 國民協會理事長 金 明 濬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 雄 珏
◇同八時 (大)獨唱과齊唱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獨唱 가、祖國愛 長田幹彥作詞 江口夜詩作曲 나、防人의노래 富田碎花作詞 弘田龍太郎作曲 二、齊唱 가、祖國의기둥 大木惇夫作詞 服部良一作曲 나、지하라大空 佐田敏二作詞 江口夜詩作曲 獨唱 水野康孝 齊唱 大阪放送合唱團 伴奏 大阪라되오·오케스트라
◇同八時一五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赤壁歌 林 小 香 鼓手 丁 元 燮
◇同八時五〇分 라되오、드라마『시냇가』一景 ―配役― 아버지…徐眞 致黨(그의아들)…宋自象 順伊(그의딸)…李英惠 南和(致黨의동무)…河一瑛 辰玉(致黨의戀人)…池順 鐵天…禹象 放送劇協會 演出 李 實 效果 效果班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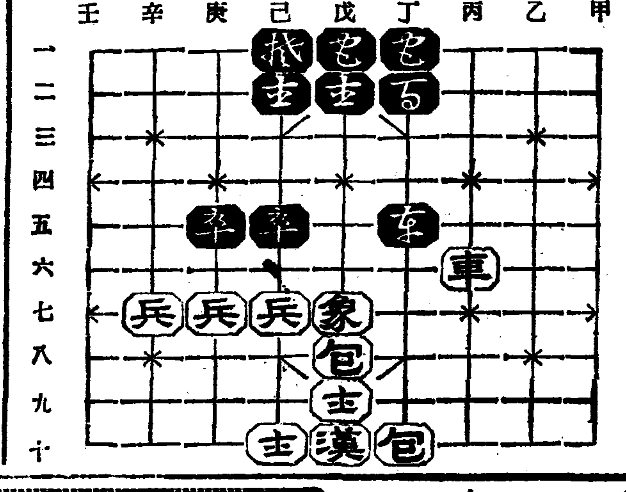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 (東)英語會話講座 H·뷔아·렛드만
◇同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堀英 四郎
◇午後零時五分 浪花節 倉橋 ? 三 廣澤虎左衛門
◇同二時 婦人時間 朱 壽 元
◇同六時 (東)合唱과管絃樂 JOAK唱歌隊
◇同六時二五分 (滿洲)講演 (新京서부터) 伴奏新響오케스트라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植田 謙吉 寺內 壽一
◇同八時 (東)獨唱과齊唱 獨唱 水野康孝 合唱 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一五分 (東)
◇同八時二五分 (大)義太夫 文 樂 座
◇同九時 (東)落語 金原亭馬生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

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九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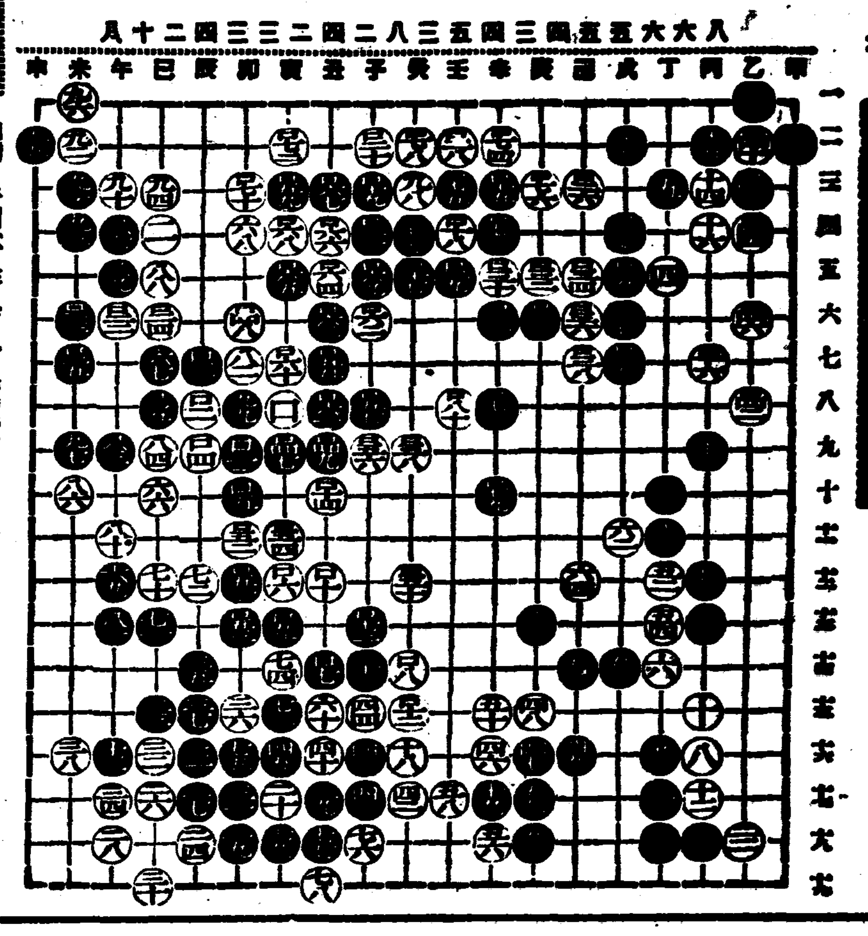
百手圖

丁五車―丁五 壬六車―丙六 乙二車―丁二 丙七車―丙七 乙七車―丙七打車
丙六車―丙七打車 辛七馬―庚八 壬七兵―辛七 庚八馬―庚五 丙七車―丙六

蔡權文氏評曰 白이 子의六으로着手하면 令人膽寒이나 辛의八로 外卿가 着手하면 白丑의五로 黑이 寅의五 白이 丑의四 延立은 奇門秘術이다 黑이 動不得 丑의三 子의五로 先手를 要하고 本皇을 完保하니 奇妙한 手段은 變策이 一般이가하노라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尹 周 炳 黑先 柳 鎭 河



唱劇史上의新機軸

歌劇『春香傳』大公演

보라 適材 適役의 名唱들!

指揮 李東白
演出 宋萬甲 丁貞烈
脚色 金容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李道令 丁南希
春香 朴綠珠
春香母 林小香

房子 吳太石
香丹 金任壽
雲峰 李東白
任實 丁貞烈
谷城 宋萬甲
獄使丁 沈相健
級唱 徐鴻九
執事 丁元燮
首刑吏 韓成俊

使令 金世俊
使令 曺南承
驛卒 趙相鮮
驛卒 柳大福
通引 都點伊
執杖使令 姜太弘
行首妓 曺鶴鵡
妓生 李桂仙
成壽香 李玉花

時日 九月下旬·場所 追後發表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胃腸の弱い人にどりこの
産前産後にどりこの
虛弱体質にどりこの
愛兒の榮養にどりこの

美味 滋養

專賣特許의滋養料!

どりこの는人體에네루거ー의根源인葡萄糖果糖及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한純粹榮養料로서胃腸을過勞식히지아니하고마시면體內에곳吸收되여精力元氣의根元이되고內臟諸器管의活動을旺盛하게합니다가을은健康의收穫時! 暑熱로衰弱해진身體를どりこの로恢復하여주십시오。

全國有名藥店 食料品店에잇다

發賣元 株式 大日本雄辯會講談社商事部
總代理店 大阪 玉置合名會社

●頭痛에 ノーシン(노ー신)

效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京城橋南町電車停留場前
趙漢英小兒科
電光一九八七番

巡査看守(講習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諸人巡査試驗問題集等二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無料) 電本(2)三〇三〇番

九月十二日夜부터 晝夜二回上演

巨浪劇壇 靑春座公演 劇界에大旋風을이르키고잇는靑春座、飛躍的大轉機에拍目하시라

林仙圭 作 『靑春頌歌』 三幕四場

『사랑에속고돈에울고』로써 滿都의愛劇家를울닌作者林仙圭君의會心의快作으로戀愛가잇는가 장숭아리悲劇을그린波瀾篇입니다 세男女의苦惱相—그리고 죽엄의三角關係가파노라마 정에呻吟하는 언덕을넘어서모든것을버리는

友情의눈물! 모든것을淨化하는洗禮의눈물! 오오거기에는사라진靑春의頌歌가고요히떠돈다

洛山人 作 喜劇『危機一髮』一幕

부지런한康樂으로罪惡을덮는다그러나그거서喜劇化될때에人生의偉大한敎訓이된다ㅡ우스며얻는人生敎訓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四〇

九月十三日부터 特別大封切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脫線僧正 에드몬드·구웬氏主演 모ー린·오사리반嬢

奇拔한스토리와名優의熱演으로天下定評이노푼大作의封切!

라무

北時雨戀の旅笠 大伴龍三監督 近衛十四郎 水島道太郎 共演

優美館 觀光町 電光三一九五

初老·高齡期 靑·壯年期

純 正 男性호르몬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國際的으로效力이優秀를承認하는

強度의疲勞感、能率의低下、倦怠感、頭痛、食慾減退、動脈硬化、性力減退

男性的特徵을發揮할수업는性徵不全、生殖器性神經衰弱、性障害、更年期

國際聯盟호르몬委員파ー구쓰博士에依한「男性호르몬劑의效力比較試驗」한結果 에나루몬의效果는다른比較製品보다强力한것은證明되고잇다 (一九三五年七月中央試驗所報告)

武田長兵衛商店

海苔場分配問題로 數千當業者恐慌

突然히 生途를 이러버렷다고 光陽海苔漁組에 非難

【光陽】지난 십이일 광양해태어업조합(光陽海苔漁業組合)에서는 총대급평의회장 부락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종래 어장연고권(漁場綠故權)을 개인이 소지한한계로 당업자간에 불평과 불만이적지아니하야 이를 전연히 소멸시키고 집단적부락별(集團的部落別)로 분배하게되엿다는데 각부락별 어장분배할당면적이 공평치 못할뿐더러 조합원의 정리가 불공평하게되야 일반조합원들은 반반준비를 하여노코 아프로 몃날지 안흘 휴건기(休乾期)만 기다리는요지음 일시에 천여명의조합원을 정리하게되어 불면히수천명의 실업자를 내엿스니 그중에도 해태만을 의지으로밋던 생산자들은 일조에 생도를일코 살길이망연함으로 불안과공포의기로에서 방황케되엿다는데 각부락대표자들은 이에대한부족한 점을들어 의견을 진술하엿스나 조합당국자들은 자기들의 복안만 절대주장하고 이를관철하려함으로 한리회들도모하려는 일반조합원의 소망과는 정반대의 현상을이르켜 도로혀 불리하게되야 이에항거하고 분개한 각부락조합원들은 조합당국자의 처사를 비난하는동시에 서한부(徐漢富)씨외오인을 진정위원으로 선정한후 군、경찰당국에 회견케하고 불일간 도당국에진정하리라는바 이는 사천여명조합원의 사활문제임으로 그결과가 장차어떠케될는지 일반은 당국의처치를 매우주목하고 잇다한다

自動車運轉手一同 二十一圓寄託

【光州】당지에는 수해동포를위하야 자선의손을 내미는사람이 만흠으로 큰부호들중에서 다소의연금품을 내노키전에는 일반중산층이하에 는 타처에서 보는바와가티 동정품이 모집이되지안는모양인데 광주상마자동차부(相馬自動車部) 운전수일동은 현금이십일원을 수해지이재민들에게 적으나마 본사주지국을 통하야 전달하야 달라고 기탁하엿스며 또한동아부인상회광주지점(東亞婦人商會光州支店)에서도 오원을 태송하야 달라고하엿는바 상마자동차운전수일동의성명은 다음과갓다

▲姜大弼▲金奕文▲姜東選▲朴允祚▲孫判同▲崔守福▲金長用▲崔秀元▲金昌鉉▲曹斗煥▲崔京秀▲田代正治▲河文植▲李寶金▲南仁洙▲姜大男▲金和俊▲金奎千▲白鳳眞▲金正守▲金明鎬

白川公普創立記念

【白川】황해도백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십삼일오전구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관민유지 학부형 다수참석하에 동교창립이십오주년기념식을 동교장 고전겸(古田兼)씨의개회사를비롯하야 봉군군수김규준(金圭俊)씨외 유지소암치길(小岩治吉)씨의축사등으로 성대히거행하고 이어서근속십주년혹노의 표창이 잇슨후 축하연이 잇섯다한다

會場用語問題로 救濟會에解散令

中本署員의怪處事

【大阪】지난십삼일 오후륙시부터 대판에 류학중인 관서대학(關西大學)일본대학(日本大學)외 각중등학교대표 삼십여명이 시내 동성구 동소교 북지정 근화유치원(市內東成區東小橋北之町 槿花幼稚園)에 모혀서 김경수(金景洙)군의 사회하에 대판류학생 조선풍수해구원회를 개최하고 의장 리웅렬(李雄烈)군서기 김영춘(金永春)군을 선거한후 의사를 착착진행하던중 동오후팔시사십분경 소판경찰서장전(庄田)고등계형사가와서 조선말로 의사를 진행하엿다는 구실로 동회를 해산을 시키엿다는데 이에대하야 그때 의장이든 리웅렬씨는 다음과 가티말하다

李雄烈君談

우리들은 학생의몸이라 시간도업고하지만 고토에 전대미증유의 재난에 곤난을격는다는소리를듯고 우리들이 그저잇슬수업서 금번구원회를 조직할려는것입니다 당국으로서 조선말로 한다고 해산을 당하엿스나 우리가 입에익은 조선말로 힘이 서로의사를 소통하기쉬움으로한것이며 도우리가 토의한긔록은 일본문으로써서 소판경찰서에게 제출하려고까지 하엿습니다 마는 해산을 당하야 리재동포구제운동조차 충실히못하게되니 유감천만입니다 운운

金淵九君의 力拔實演大會

【安岳】해서일대의 력사로굴지하는 진남포김연구(金淵九)(三五)씨는그간 동경에건너가서 력구에、고안술등을 전공하고 도라와서 각방면 흥행을하여 지난포에 연구소를두고 청년들을 수히양성하는데 그저간 북조선일대에도 지방순회를해서 스포-츠사상을 고취하얏는데 다시금 안악에와서 지난십사일과 오일 량일간 태평극장에서 실연케되어 본보안악지국 주최로 입장료를밧기로 하얏는데 수입된액에서 실비를 제한외전부는삼남수해구제금에 충당키로되엿다 한다

◇寫眞……(上)本社新義州支局에 蒐合된 三南水災救濟品 (中)本社宣川支局에 寄託된 水害救濟品과 募集員一同 (下)琿春에서 興行한 南朝鮮水害救濟劇興行團員一同

救濟演奏準備 海州券番妓生

【海州】남조선일대를 엄습한미증유의참상을 남긴폭풍수해로인하야 재민들이 의복을헙벗고굶주리며 가로에서 헤매이는참상은 보고듯는사람들의신경을 자극시기여 전조선 방방곡곡에서 구원의동정이 쏘다저잇거니와 해주음기생권번에서도 이재동포의참상을 그대로보고 둘수업다하야 해주체육회와 조선사회사업협회황해도지부후원으로 어삼사양일간 동포구제연주회를 연다는데 그의상료금은 전부이재동포에게보내고 따라서 당일출연이외의기생들도 당일간의화대(花代)는 모다합하야서 이재동포에게 보내기로 되엿다는바 만흔동정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白晝, 牧童을刺殺 飼牛를强奪逃走

市場에가서賣渡하랴다가被逮 —犯行一切을自白—

【海州】소(牛)메기는 소년을칼(刃)로찔러죽이고 그소를 강탈도주하엿다가 경찰에붓들린 살인강도사건이잇다 ——지난 구월십사일 오전여덟시경 해주군검단면대암리(海州郡檢丹面大岩里)사는 전봉의(田鳳義)씨의 맛아들되는 첫재(初孝)(一三)란소년이 동면에서 신천군남부면(信川郡南部面)에통하는 산길가에서 소(牛)를끌고 풀을메기고 잇는것을 어떠한자가 달여드러 그소년의상반신을 칼(刃)로찔러 죽인다음 시가약팔십원의 그소를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엿다

이급보를 접한 해주(海州)신천(信川)두경찰서에서는 범행장소를 중심으로 수사망을느리고 범인수사에 활동하엿스나 효과를 엇지못하엿는데 그익일인 십사일에 안악시장(安岳市場)에서 소(牛)를팔려는 거동이수상한청년을 안악서원이 발견하고 취조한결과 그는장연군 속달면속달리(長淵郡速達面速達里)리종구(李鍾九)로서 전긔 범행일체를 자백하엿다한다

營口同胞의赤誠 十二圓을寄託 民會서도六十圓

【營口】금반삼남수해의비보를듯고 이역에잇는동포들의 뜨거운 열성에서 울어나온 동정금은삼남재지로보내달라고본지국에의탁한바 동정금은한계십이원인데금액급씨명은아래가티고하며당지민회에서모집한금액은 륙십구원오십전인데 당지령사관을통하여 경성사회사업협회로보내다고한다

內譯

三圓 營口農村實踐院 李憲宗
二圓 河北金融會 許 渭
五十錢 李南根 金正默 金敬星 張鍾永 朴一浩 崔聖植 牧野伊
三圓 張炳龍
二圓 營口農村實踐員一同
一圓 營口二本松 高橋實

海州文協藝術部 第一回演劇公演

十七、十八兩日海州劇場에서 本社海州支局後援

【海州】자유주의적인예술의 창달을목표로서 조직된 해주문화협회 예술부(海州文化協會藝術部)에서는 조선의 신극수립(新劇樹立)을 목적으로 본사해주지국후원미테 오는 십칠팔양일간 해주극장에서 제일회연극공연회를 개최키로되어 방금그준비에 열중하고 잇는데 그레퍼토리와 배역(配役)은 다음과갓다

◇崔丙漢作 아리랑고개(全五景)

演出 崔丙漢　舞臺監督 韓永一　裝置 李初毅

效果 李邦玉　大寶 朴元植　小寶 李仁豪　玄錫 [illegible]　▲……配役 [illegible] 鄭大榮

三番 金泰鉉　春三 崔 旺　春三母 [illegible]　金令監 [illegible]　立粉伊 吳二仙　德令 李[illegible]　行人 [illegible]　[illegible] 吳一仙　村女子 金小[illegible]　[illegible] 金 影　老人夫 [illegible]　石順 [illegible]　양전이 吳仁淑　長善이 金 [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金判書 李[illegible]　李[illegible] 鄭 旺　[illegible] 崔[illegible]　女下人 朴[illegible]　朴書房 李 [illegible]

◇崔丙漢作 도라오는아버지(一幕)

▲配役 金賢模(長子) [illegible]　金仁模(次子) 崔 閑　金文姬(妹) 吳二仙　吳 氏(母) 任明玉　金[illegible](父) 金泰鉉

金剛山探勝團募集

本社平壤支局主催 申請期廿五日까지

【平壤】본사평양지국에서는 변중해사의 하나로서 『하이킹씨-즌』을 마지하야 심신단련의 보건운동의 한가지로 명승지를 순해외거니와 금번에도 하이킹을 동호자 제위의 요구에의하여 천하승 금강산탐승단(金剛山探勝團)을 제오회로 모집하게되엿다

탐승코-스는 신계사(新溪寺)를 기점으로 [illegible] 중요처를 선택했고 회비는 가장저렴한 삼십원으로 정하엿다 원생고려국 일명금강산(一名金剛山)이란 후세에 한외국인들도 만뢰한만큼 금강산을 보지못하고는 세계의 풍경명미와 장엄을 이야기할자격조차 가지지못하는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이십오일까지 회비이십구원을 첨부하여 본사평양지국에 보내기를 바라며 지방인사의 참가도 환영한다고한다

地方人事

▲森山淸吉氏(楊州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本社經由慰問品 衣類九百餘點也

永同罹災民에게配給

【永同】금번의풍수해로 수만의 이재민은 내여 의식주를 홍수에 일허버리고 긔한에울고잇는 재민을위하야 지난십삼일에 본사로서 수송한 위문품(慰問品)을 본보영동지국에서는 당지군당국과 협력하야 군내각면이재민들에게 배부하엿다는바 금번에 배부한위문품은 의류구백여점으로 재해지인각면에 배당된것은 다음과갓다

永同面	一一五點	梅谷面	五〇
龍山面	六九	上村面	二八
黃澗面	一七九	龍化面	二二
黃金面	一七七	深川面	一九
		計	九一九點

元山進誠女普生 衣類百點寄託

【元山】원산 진성녀자보통학교(元山進誠女子普通學校)생도들은 지난십사일 삼남리재동포에게전달해달나고 의류일백오점을 본사원산지국에 의탁하여왓다

六圓餘를寄託 賣來町有志들

【羅津】과반남조선수재의대참보가 세상에보도되자 남북간지로부터 동포에게의연금품이 몰미듯답지하는이지음 함북라진(羅津)의보래정(賣來町)유지로부터 륙원오십전이모혀저서 지난십이일오전열시 나진지국에 기탁하엿다한다

儀岐公普校 學級增設運動

【永興】일면일교제실시의 혜택을입어 영흥군여기면(永興郡儀岐面)에도 소화십년도에 공립보통학교를 창설하고 이래 갈으켜왓는데 해마다늘어가는 지원아동의 수용난을 미연에방지하기위하야 학급증설을 학급연장을여고 지난구일에 동교강당에서 여기공보교 학급연장기성회 발긔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이십일에는 총회기성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바 귀성회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災地巡訪

穀倉의全南을蹂躪한……(二)

甚哉! 暴風雨의作戲

裸體로死線에선災民을차저서

光州支局 崔仁鎬記

폭풍우가 제일차 제이차 제삼차습래하니 고통이 더심한것은 리재민들이다 그네들은 대개가 죽지못하야 살고잇는현상으로 차라리 금번수해로 인하야 죽은사람을 동경하는듯이 이와가튼 천변을 당하고잇는 리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잇는것을 보게되얏섯다

더욱이 참혹한것은 금번수차의 폭풍우가 습래할적마다 해양(海洋)으로부터 육지에 최초 상륙을 보게되야 우량이나 태풍의 피해가 제일심한곳은 전남도내에 잇서서 남해안일대군인데 그중에서도 사망자 이십여명과 부상자 수백명을 내엿 보성(寶城)군내의 오성시장(烏城市場)과 벌교면벌교리(筏橋面筏橋里)등 일대는 침살려 몰리는 탁류로인하야 집이라는 집은 모조리 동옷단배와가티 떠내려가며 또는 침몰된 긔선과 가티 여지업시 도괴되오 일장의 수라장이라고밧게 볼수업는데 순식간에 그들의 행락촌은 로일은 벌교포(筏橋浦)일대는 지옥으로 돌변하야 여긔저긔 사체가 물우에떠잇서 보는사람으로하야금 눈쌀을 찌푸리게하얏다 체험자의말을듯고 긔자역시 당시를 연상하며 눈쌀이찌푸려진다

×

동군내에서 생매장(生埋葬)칠명을 내엿잇스니 그는송려선(松麗線)철도안치(鶴峙)등부근에서 지난이십칠일에 습래한 폭풍우로인하야 동이십팔일밤중에 산이 허무러저 일가족칠명은 영원한 암장을하고 마럿다한다 산이 문허저서 사상자를낸곳이 [illegible] 한두곳이 아니여 [illegible] 월등리(月登里) [illegible] 에서 역시이십 [illegible] 면서 철로가 [illegible] 산이 문허지 괴되야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illegible] 전남각지재난을 만나는 [illegible] 현상이겟스나부 [illegible] 르는 비창한 [illegible] 으로서 가장 울스러리게하고잇다

그리하야 한가족에서 이삼인을 어떠버린것이 보통으로 륙명의식구에 단한사람만남고 오명이 생사를모른다는참통한구시장(長興邑市場)에 사는김치도(金致道)의가튼사람도잇다한다

×

그와가튼 참상을당하면서도사라잇는사람은 먹어야함으로 먹을것을차즈니 어대먹것업시 침수되야 먹을것이잇슬리만무하다 그래도 침수된후 물빠진형적만은 자긔네집을차저 수일전까지 두고먹든양식을 차즈니 어대로인지 떠나가고업는곳이 대부분이며 흑은잇다하더라도 희어야할쌀이 먹물드려논것가티 색까만것으로 그것만이잇는것도 다행으로 역이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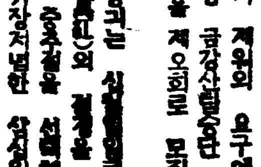
이와가튼형편으로서 먹을것을 못먹고 음료수역시 조흘리가업다 이러하니 그결과는 모다배탈날것은 정한리치이며 거긔다가 장질부사와 리질가튼전염병이 횡행하니 글자그대로 생지옥이 아니고무엇이랴!

가련한생명을 한업시슬퍼하며 장차어찌할줄을모르고잇스니 그도무리가아니다 례변과가튼보통보는수해라면 당분간 고통을밧고라도 자력으로서 생계를이을수잇것스나 금번과가튼 전무후무한대재화는 인명사상자가 전남도내만이 사백사십구명이란 엄청난수자에 이르럿스니 이와가튼 대재화를만난리재민자신으로서는 어찌할수업는형편에 이르럿슴이나 당국의 적극적구조와 혈룡이가튼동포의 따듯한동정이 잇기를바랄수밧게 업시되엿다

×

유사이래처음보는 참혹한 정경에 처하야 먹을라야 먹을수업는 그네들은 금후닥처오는엄동설한을 어떠케 넘길것인가 그네들의 생사를바치고 지금까지 반년동안 고이고이 붓도다길러오든 농작물을 어떠하엿노? 전남도를 대부분점령하고잇는 이대평야로 전남서북을차지하고잇는 라주평야(羅州平野)와 또는 전남동남을 차지한순천평야(順川平野)를 위시로 전답시유실함몰된면적이 삼천이백 이십정보이며 침수된면적역시 오만이천팔백륙십팔정보로서 그피해액이 일천만원을돌파한다고한다(계속)

愛慾의彼岸 【102】



李光洙 作　金康穆 畵

해련의말!—은주에 관한 말에 어떠마즌 문임의 마음은 서리마즌 입사귀와 가티 풀이 죽어버리고 말엇다。그 아픔! 그 아픔!

문임이야말로 자진해서 은주에게 마음을!—몸까지도 허하지 아니하엿나? 실타는 은주를 억지로 끌어서까지 사랑의 허락을 밧지아니하엿나? 자긔는 보통학교에 교원이 되고 은주는 장사를하고, 이러케 시골 가서 살자고까지, 문임 제가발론하지아니하엿나? 그런데, 그런데。문임은 울고시펏다。

『원산 가면 내 편지하께요。잘 잇다 오께요。』

한것은 누군데? 원산을 ㅡ나기 전날 문임이가 은주를차자가서 약속한 말이다。 문임은, 두번이나 편지와그림엽서를 은주에게 보내엇다。

『잘 왓습니다。원산에는 비가 와요。바다에물스결이 대단히놉습니다。생각만은 가슴과 가치요。』

이런 소리를 은주에게 써보낸것은 누군데。

『선생이 여긔 계섯스면 얼마나 조흘가。바다스가에 사람이 수업시 만하도 광야에 혼자 잇는것과 가티외롭습니다。』

이것은 뉘 말인데。

그러나 편지 끄테는 문임이라는 명은 쓰지아니하고 ㅍㅍ이라고 썻다。ㅍㅍ이라고 썻스니까 괜찬켓지, 이러케 생각하지아니하면 아니, 필 문임이 되어버렷다。

그날 오전에 비갑 멀기전에 해금강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채련이가 바닷가에 나간 틈에 문임은 김장로와 단 둘이서 혼인준비할 이야기를 하고잇섯다。

정이란 틈이면 드는것인가、문임은 요새에 와서는 김장로에게 대하야 열정을 느끼기까지하엿다。 평은 애인의지극한 은근이 젊은 문임을 움지긴것인가。

『나 그 절에선 살기 실혀요!』

문임이가 이런 타발도 하엿낭。

그러나 문임은 김장로의 제게 대한 사랑을 이용해서 은주에게 대한 속죄를 하리라는 생각이 낫다——

『그런데 말야요。은주씨가 마음에 걸리는데』

하고 문임은 엉석을 그치고 시침이를 땟다。문임은 김장로와 단 둘이 잇슬 때에는 엉석을 부릴만큼 되엇다。문임은 그것이 김장로를 포로를 만드는 가장 유력한 무긔인것을 벌서 발견한것이엇다。

『또 은주 소리야?』

하고 김장로는 화를 냇다。그는 은주말이 문임의 입에서 나오면 질투를 느끼는것이엇다。

『그럼, 난, 은주씨헌테 시집갈테야요』

하고 문임은 뽀로통한다。

『마음대로 해!』

하고 김장로는 일어나서 창으로 바다를 바라보앗다。

『제 말슴을 다 듯지안코시고 그러세요』

하고 문임은 뽀로통을 버리고 원망하는 무긔를 꺼냇다。

『무슨 말야?』

하고 김장로는 돌아와 안는다。

『그만두세요』

하고 문임은 김장로에게 등을 향하고 돌아안저서 훌적 훌적 운다。

김장로는 넘우치는 마음이 생긴다。아직 이러케 우럭우럭하게 다룰 때가 아님을 느낀다。

『문임이!』

하고 비는 음성을 발한다。

『문임이! 그래 은주를 어떠케랴말야?』

김장로는 정치적 절충을 할 준비를 가젓다。

『내가 잘못햇스니 어서 문임이 해달라는 일이면 무엇이나 다 할테야。』

문임은 완전히 굴복하엿다。김장로는 울던 끄테 웃음이 나려듯엇다。

『문임이, 자, 아리 돌아안저서 어서 말을 해, 내가 참 문임의 말도 다 아니 듯고 화를 내서, 자, 내 다시는 안 그러께, 어서 말을 해요。』

김장로는 장래의 보장까지도 서약하지아니하면 아니 되도록 궁상에 빠젓다。문임의 마음이 만일 다른데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김장로에게는 생명관계의 큰 일이엇다。

經濟解說

米穀三大調査

差別材料로利用?

李 健 赫

× 日本內地의 食糧問題는 새삼스럽게 數字의 說明을 빌지 안흘지라도 朝鮮米를 移入치 안코는 不足하야 主食으로 할수업는것은 常識을 不絕히에도 不拘코 日本內地農村經濟에 主眼을 두어 朝鮮米를 差別待遇하며 눈의 가시가티 알어온것이 事實이다。農林省의 米穀政策은 다시 말할것업거니와 이傾向이 米穀商人에게 까지 感染하야 狹少한 偏見下에 最近 싯그럽게 떠들면 大阪白米商組合의 朝鮮從白米 不賣同盟가튼 일은 생각하면 도모지理解할수업는 事件까지 惹起한것은 決코 輕忽에 付할問題가 아니다。

生産者인 日本內地農民이나 米穀當局인 農林省이나 甚至於 米穀以外에 도라보는것이업는 商人까지 差別待遇에 餘念이 업는 이가리 朝鮮米에 對하야 差別待遇에 餘念이 업는것은 무슨까닭이냐?

× 日本內地側으로말하면 米供給이 不足한것이 事實임으로 朝鮮米를 移入하야 그不足을 채우되

1、朝鮮米가 一時多量으로 移入되어 日本內地米價를 低落시켜서는 안될것이다

2、朝鮮米를 移入하되 될수잇는대로 低廉하게 사드려야한다

는 二大原則에서 조금도 버서서는 안된다는것이 絶對條件이오 이두가지原則을 貫徹하여서는 어떠한 方策이던지 不辭하야 지금까지 나타난 米穀政策이 모다 이것에 基因되것이엇다。

× 그러나 産業統制一元化를 부르지게 되엇고 日本內地業者附設에서까지 米穀政策의 一元化 低對策案을 主張케되것은 자못 注目되는 點이다 朝鮮米는 日本內地食糧의 不給을 하야 가진 虐待를 甘受하면서 販賣를 버돌대로 버돌엇다。表面은 內外地를 一體로 觀察之는 差別法文化한 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가 數日을압둔 二十日로 닥처왓스나 朝鮮米는 하소할곳업이 그대로 닥처올 運命에 順從코저할뿐이다。

吾人은 이미 論議된 米穀自治管理法의 朝鮮米影響을 再論코저함이 아니오 果論이잇다할지라도 이미 法文化하야 實施가 目捷間에잇는 이때에 잇서 管理法 그것에 對하야서는 日可日否가 成服後藥方文이 되것슴으로 다만 바라다면 米穀自治管理法實施에잇서 過剩米數量決定 貯藏量算定等運用에, 當하야 委員會의 善意的 措置와 當局의 實施方針이 特殊한 朝鮮米를 苦悶케 한것이 事實이니 넘이것 以外에 米穀自治管理法實施를 압두고 重大한 關心을가지게하는것이 잇스니 그는 卽 米穀三大調査라는 그것이다。

× 米穀三大調査라는것은 今年부터 새로이 實施되는것으로 總督府로서는 莫大한 經費와 多數한 人員을 使用하야 米穀의 生産、移動、現在高의 가장 正確한 數字를 算出하자는 것으로서 「適切한 政策은 恒常正確한 統計에依치 안허서는 期할수업다」는 點으로보아 三大調査 그것亦是 反對할 아모根據가 업는터이다。

× 그러나 同調査는 調査그自體의 不絕에 잇는것이 아니오 三大調査의 時期가 朝鮮米로서는 差別材料에 利用될바 危險性이 가장 만흔 때인때문이다。

三大調査그것이 日本內地米에 比하야 朝鮮米의 事情이 平衡될때인것가트면 問題는 달러지거니와 地方에 比하야 數字의 相違 (三大調査前에比하야) 가 잇다 하드래도 그는新調査에依하야 그러한것이라하야 그影響되는바가 거의 업던지 或은 적엇슬것인데 지금狀態로보면 지금까지 當해보지못하던 新政策의 新體인 米穀自治管理法이 實施되는때이데다가 日本內地米는 大凶作豫想、朝鮮米는 旱、水風災로 大凶作이 豫想되는 이때에 三大調査가 시작되는 때문이다。 ─(계속)─

朝鮮米九月一日在高 豫想以上過多

近四千名을動員한新規調査 米穀界衝動이 클뜻

今年부터 新規로開始된 朝鮮米穀의 生産、移動、現在高의三大調査中、現在高의調査는 九月一日現在로 最初의試驗이 無事完了되여 總督府農産課에서는 上部의 決裁를어든後 數日內로 發表를보게되엿는데 이現在高는 從來 報告(生産搬出、消費)를 基礎로 推算한것이 잇섯슴으로 勿論 適確치는 못하엿스나 重要한 資料가 되엿든것만은 事實이엇다 即그에依하면

	九年	十年
	千石	千石
五月一日	[illegible]	[illegible]
七月一日	[illegible]	[illegible]
十月一日	[illegible]	[illegible]

으로 以上의推計로보면 今年九月一日現在는 만이百四五十萬石에서 二百萬石의 사이에 잇슬것인데 今次의 新規調査에依하면 이러한豫想보다는 훨신 만흔 三百餘萬石에 達하는모양이다 그러고 今般調査實施에는 農倉、米倉、運送、府、邑面、米穀業者 各市場 社寺等의 各倉庫를 通하야 指導員二百二十名에 調査員三千六百十名이 動員하엿든것이다

米穀自管法等 十六日公布 二十日에施行

【東京電話同盟】來二十日施行할米穀自治管理法外關係勅令은 上奏御裁可를經하야十六日公布되엇다

一、米穀自治管理法施行期日件
一、昭和十一年法律第二十五號米穀統制法施行期日件
一、米穀統制法施行令中改正件
一、籾共同貯藏獎勵法
一、籾共同貯藏獎勵法施行令

水害地農業 復興對策協議

米穀自治管理法施行關係의 各道農務課長會議는 十四日以來開會中인데 最終日인 十六日은特히 今般洪水禍에依한 各道의農業復興對策을 緊急議題로하야恒久對策으로서

一、過剩人口의 適切한 移殖策
一、水禍頻發地의 作付開畓의適切한 調整

等을 附議하는同時에 繼續的對策으로서

一、耕地復舊에關한 前後處置
一、應急作物의 栽培指導
一、生産的救濟策으로서의 副業獎勵

의各項에 亘하야 協議하엿다

朝鮮運送도 半官半民?

國際通運은 鐵道省의 方針에 依하야 半官半民의 純特殊小運送會社化하기로閣議決定이잇섯다 이에伴하야 同一方針下에 合同成立된 朝鮮의 朝鮮運送會社도 總督府의 方針에基하야 小運送의合理化와 그重要性에 鑑하야 通運同樣半官半民의 特殊會社化키에至하리라고보인다한다

棉作二割減

一億五千萬斤程度? 棉實配給까지不安

今年의 棉作은 好順의몹통이어 作付二十三萬町步에 達하얏는데 旱魃에잇서서 今次의 風水禍는 全南、慶南、慶北、全北等의 陸地棉과 棉作中心地帶를 席捲하야 그結果 今年의棉作被害는激甚하고 實로昭和六年의 大凶作에다옵가는 大減收가 豫想되기에至하얏다 大體農林局에서 豫想하는바로는 前年度에 比하야 三割의 大減收로 前年의 二億一千萬斤 收穫에對하야 今年은 億斤 一億五千萬斤程度로 보고잇다 이것은 各道農務課長會議의 報告에基한 農産課의 推算數字인데 이結果 前年은 一億二千萬斤의 共販出廻는 今年은 一千萬斤以上의 共販出廻는 二道에 不過하고 五千萬斤乃至六千萬斤으로 半減이豫想된다

그러고 農林局에서 가장 憂慮하고잇는點은 이에 依하야 來年度의 棉實配給이 不安에빠질려 棉實은 今年同樣의 作付二十三萬町步로 보면 實로 三百四十五萬斤을 要할것으로 이自給은 高級棉實이 必要한 關係上 相當困難視되며 如斯하야 棉花는 國策上에도 重大影響이잇서 그影勢가 憂慮되다한다

朝鮮運送 (see above)

來年穀物大會

京城서開催될듯

朝鮮穀物聯合會의 第四回 米穀大會는 來秋 木浦에서 開催키로 되엿섯스나 同地方은 風水害 旱害等이 二年間 繼續되어 米作을 비롯하야 棉作等農作物이 不作이 繼續되어 地方農民이 非常히 苦痛임에 鑑하야 丸木協會의 希望如何에 依하야서는 來秋同地開催는 中止하고 來年은 "鮮米會館"의 落成을봄과 社團法人으로 改組後의 第一回大會에際함으로 丸仁協會主催下에京城에서 開催키될模樣이라한다

簡保資金運用 基準利率引下

五分에서四分으로

低金利時代에도不拘코 簡保資金運用은 最低五分基準을 가지고 잇슴으로 各方面에서 是正이要求되던바 遞信局과 總督府財務局에서 大藏省預金部와 愼重協議한結果 昭和十一年度後期運用부터 從前의運用基準인 五分乃至五分八厘를 改正하고 最低運用率을 一分引下하야 四分으로하게되엇다 이것을 下旬의簡保資金運用委員會에 附議後 正式決定할터인데 이改正은 大藏省의低利下와 併進하야 朝鮮內低利促進上 注目할效果를 擧할것으로豫想되더다

經濟界消息

京城見本市閉會 賣上百二十三萬圓

第八回 京城商品見本市는 盛況裡에 十五日閉會하엿는데 三日間賣上高合計는 百二十三萬三千二百八十四圓에 達하야 豫想外의 成果이엇다한다

吉州와三千浦 商銀支店開業

商業銀行의 新設吉州、三千浦兩支店은 目下假營業所를 改築中인데 吉州는 十月二日부터 三千浦는 十一月一日부터 開業키로되엿다

○長項製鍊所第二期擴張=朝鮮製鍊의第二期計畫에基한 長項製鍊所의 擴張은 工費二十萬圓으로서 着手키로되엿는데 工事資金은 殖銀으로부터 借入키로 決定되엿다

○京春鐵道第二回實測=京春鐵道에서는 先般來測量中인 加平金谷間의 第一回實測을 終了하고 繼續하야 二回實測을十一月末까지에 行하고 設計에着手、來春一月入札、解氷을待하야 直時着工키로되바 金谷京城 加平、春川間도 繼續하야 實測하리라고

○有賀殖銀頭取出張=有賀殖銀頭取는 安井秘書、山口產業兩課長을帶同하고十六日午前八時二十六分發北朝鮮에 出張、元山에一泊後咸興의 米穀大會에出席하고 同地에서 二十二日까지二十三日부터 北朝鮮各地方을視察하고 十月五日午前七時二十分着歸任하리라고

重要商品界事情

八月生絲輸出

八月中의 日本生絲輸出高는 總數量 五萬四千七百六十俵 總價額 四千二十九萬一千百七十一圓으로 이것을前月에比較하면 數量 一萬二千百八十四俵(二割八分六厘)價額에잇서서 一千二百十八圓(三割三分五厘)의 增加를 示하엿다 그內容은 北米向이 一萬七百六十七俵 增加 歐洲向이 一千九百七十六俵 增加되엿데對하야 其他向이 五百五十九俵의 減少이다 다시 前年同月에 比較하면 數量에잇서서는 三百五十六萬 二千俵(三厘)의減少이나 價額에잇서서는 入百四十圓(九分七厘)의增加이다 이것을 輸出地別로보면 北米向에잇서서 一千二百八十七俵 減少되엇에對하야 歐洲向은 六百二俵 其他向이 五百四十二俵의增加이다 그러고 國別數量은 如左하다 (單位俵 △印減)

	本月	前月	前年同月比較
佛蘭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濠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班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波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芬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瑞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瑞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墺太剌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伯剌西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墨西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埃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領모록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시리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濟寸鐵

○ 三精米合同計畫을보고、金融的으로 精米業大合同이 問題化

○ 朝鮮이 쌀의朝鮮이라면 朝鮮의 商人은 精米業이 첫재오 業者數가 만흔것

○ 이것이 어떠케統制되느냐 小精米業者들은 對岸의 火災視해도 無關할가?

○ 朝運도 通運과가티 半官半民會社로될 形勢라도 押小運送業者 더못해먹것군

取引停止(九月十二日)

◆化粧品商京城府明治町二丁目本邦夫◆酒商京城府仁寺町四四番地水光商會崔英熙

株式 朝取狂騰 好勢

商況 【十六日】

朝取爆發 大原店이買煽

朝取는 米豆部의 大商盛으로業績되어 二期配當說까지 잇는터로 今前場에는 그것을材料로잡고 大原 內海兩店의 買煽的비이가이로 兩紙値를 消化八十五圓丁의 高價까지잇서고 朝新은 德來 新田屋에大原 兩紙의買에 三十五圓十錢에 暴騰되엇는데 前場中 賣買가朝取 五百三十枚、朝新二千三百五十枚이엇다

米豆部賣買殷盛

十五日六十二萬石

仁川米豆部賣買高는 十五日에六十二萬六千八百石으로 本期累計는 一千百九十六萬三千八百石으로 大正十一年十月二日(六十二萬四千石)以來의 新記錄이엇다

東新의再檢討 二次戰取組中

取引所改善案이 遷延을傳하고 東新當局이 緊迫化하얏슴으로 東新도 鐵株昂騰에 伴하야 古來의 狂奔性을發揮하고서 北海事件、證券移轉稅創設決定說等으로 買氣挫折되고 百三十三、四圓間 保合인바 이에檢討할것은 (以下京短期)二、二六事件의 大底百十九圓三十錢에서 反良하야 五月二十日에構成한百三十七圓八十錢의 所謂一番天井과七月十六日百三十六圓八十錢을 二番天井으로하야 七、二二事件으로 七月二十四日百二十圓三十錢으로 大底 가까워겠遠元한後의一昂騰인만치 이것을罫線으로보면 五月二十一日의 所謂一番天井이 가장當觀되는터로 歸着點은이번의 好轉도 三番天井構成作用이라고 적게보는者업지안타

그러나 夏枯의深刻한低價慘淡과過已悲觀의徹底化 諸株의取組漸增 株價昂騰에伴한 業績改善 取引所問題도一應解消되는等으로此後二、二六事件休會後의 始價百四十六圓을期할도 無理가아닌것 갓다

日産時代期待

昨日八十三圓臺로 올르는것은日産自動車製造營業認可好感이 動機가되엇모양이다 八十二圓臺로今前場은 頑軍이엇다 大勢觀으로 有望한 投資株로서 첫손을꼽을것은 日産으로서 特히그子會社인 日鑛은產金高와 世界的銅高及그兩者의 劃期的增産에依하야 現實의業績이조아 一割四分配當永續等도 全然問題업고 時代는 明確히 產金國策을 要求하는中으로 前途의 發展性을可期할것인바 이런點으로보아도 日産은 이미 모든悲觀으로 底價가업기를 立證하는同時에 子會社一般의 好成績에 支持되어日産時代再現도 不遠하다는 觀測이有力하다

鋼管拂込徵收

日本鋼管株式會社는 十二月一日 優先株及第一、二新株에對하야 金五圓式拂込을徵收할으로써 長期取引은 十二月限及短期取引은 十二月一日부터 鋼管第一新株拂込金額을 二十五圓으로서 賣買함

前場朝取高

今前場朝取新株는 買煽하야 朝取八十五圓에 爆發하야 昨後引보다 六圓二十錢高이고 八十三圓丁大引、朝新三十五圓十錢에 二圓高이고 二圓四十錢大引되엇스며 東新은 百三十四圓二十錢이엇섯스나 三圓七十錢에 伸惱大引 日産八十二圓七十錢으로 一圓五十錢大引 鐘新百七十三圓三十錢、大新六十九圓八十錢 各寄付一本이엇섯다

▲朝取 [illegible]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好勢

後場은 朝取八十八圓丁에 續狂騰이고 朝新三十五圓五十錢 東新百三十五圓四十錢 大新七十圓八十錢 鐘新百七十四圓九十錢 日産八十三圓四十錢 日産新二十九圓三十錢에 一齊高로 好勢이엇다

期米 關門再割 低迷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八圓十三錢에 壕落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값三十圓三十八錢인 十丁反高를 排하고 二十、圓二十三錢인 亦十丁高로場옵 始한後 阪地四十一錢으로二十六錢까지 反落止場옵을 伴하야 反動高의 反動落으로 九節에 二十七圓八十六錢으로 八十七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七圓九十四錢에 七丁高로 始場後 八十八、九錢에 低迷이고 六節九十四錢으로 九十六錢에 止場하다

六感

株……業績樂觀을 材料로 大原店이 買煽하야 今前場에 朝取는 八十五圓丁에暴騰▲그러나 八十四圓丁에서 八十圓丁을 步一本에四圓式호려갈기는 것이 고와한일▲이런不謹愼한 賣買를 特히바이가야는 高場에서 認定치안허야 할일▲一、二分동안에 四圓을떠러트리는 根據나 材料가 무엇인가▲하로 밤동안에 六圓式 買煽하야도 잘못이지만 이따위 浮動的變動은 모름지이 愼戒할 일▲東新이 아모까닭업시 一本에 四圓式 高下되일이잇는나▲朝取市場이 輕侮당하는 것도 당한노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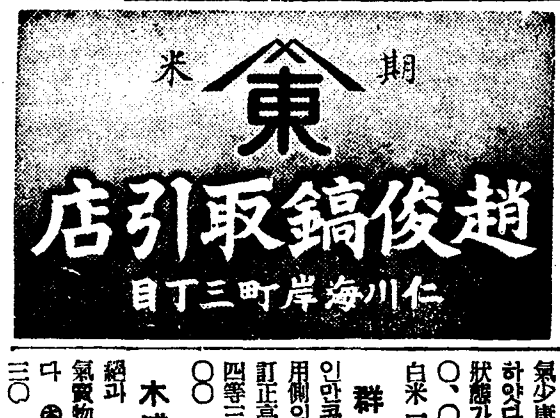
米……衝天의氣勢를 보히러어 急反騰하든 當地市勢는 今朝阪地高도 不拘하고 反히軟態에 傾한다 아마도 大勢는 아즉도 低價를 呼訴하는 모양?▲孤城落日에 嗚呼嗟歎하며 갈바를 알지못하는 阪地田中貞은 定期의 投賣를하는 一方 擔手하여온 蓬萊米도 投賣▲八十萬袋에서 四十萬袋만나마 남지안헛다나 그것마자 投賣할모양?▲아프로 二百三十日도 無事經過할 뜻한 모양으로 軟派는 此日의 經過를 따라 更挑一戰할 氣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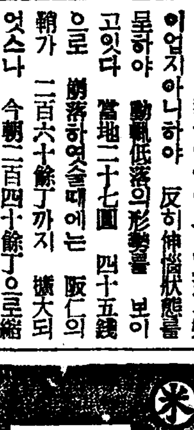
買陣全허陷落 田中貞戰意喪失

本年初夏以來로 一時寶戰에立하든 買方의 隨一인 田中貞一派는 定期의 損失을 挽回하려는 蓬萊米八十萬袋를 買入하는 一方 定期에도 相當한 買物을 擔持하야 一擧天下의 氣勢를 加하려하엿스나 日本內地의 氣象의 豐作으로 期正兩界를 不問하고 低落에 低落을 加하야 烏合買方의 鐵陣도 失敗에歸하야 前記蓬萊米의 約半分이나 投賣하고 從하야 定期의買物도 損切하는모양으로至今은 田中貞의 買氣勢도 全혀 喪失되고잇다 果然今後의 大勢가 如何히 展開될가는 注目되는바이다

當地動輒低落

去十四日當地二十七圓四十五錢은 一轉반호를가지고 前場 昨日阪地의 小高를反影하야 低價로부터 約八十丁의 反撥을示하더니 今朝에入하야는 阪地三十八圓三十八錢 當二十七圓四十二錢인 十丁高로 反高를 報하엿슴에도 買過의嫌이업지아니하야 反히軟低落의形勢를 보이고잇다 當地二十七圓 四十五錢 以下는 二百六十餘丁까지 低落하엿슴으로 所謂 當地의 期米는 今朝二百四十餘丁으로縮少되엿슨즉 從來慣例에 依하야 그러므로 適當한 開朝로볼수잇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阪地의 市勢如何에依하야 左右할모양이다 日本內地의 事情으로 보면本端境期의 需給緩和를 告하게되는 政府米의 拂下를 實施하게될것이며





各地正米

大邱引返

期米硬化로 人氣少康이오 氣配二十錢引締를告하얏다 唱떤이오 取引은 停頓狀態가 繼續되엇다 四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三二、七〇

群山反撥

急轉下를演한뒤 인만큼 買物이잇고 日本內地當用側의 入注到來로 一擧四十錢의 訂正高이엇다 ◎三等三〇、四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一、四〇

木浦暴落

日本內地實行中紹과 天候恢復으로 所持側의 嫌氣賣物이 나와서 四十錢暴落이엇다 ◎三等三〇、六〇 四等三〇 一等白米三三、〇〇

米不透明으로 人氣低迷가 繼續되엇다 四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三二、四六

東城閑散

賣方無氣力이오 市況幾分 狀態가 繼續되엿다 ◎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三二、〇〇

仁川不變

期米는 刑勢步調이나 所持側은 遠慮的賣唱으로 出치안코 市況은 極히 沈滯狀態에保合이엿다 ◎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三二、〇〇

釜山不動

實需買가잇고 日本內地沒交涉과 期繼續하야 [illegible]

寶島前場賣買

【大阪電話】◆賣方=寶島、藤原◆買方=海運、地場、來業、地場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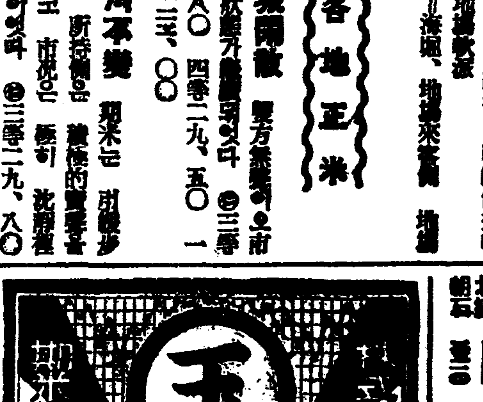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本子公債은逝行이 追隨되엿슴으로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今日財界 (十六日)

[illegible]



金融 十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府中金銀價◆ [illegible]

米 十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六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綢布◆ [illegible]
◆鰮搾粕冲價◆ [illegible]
◆鰮油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六日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鮮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買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六日

◆大阪棉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滿外砂糖◆ 十五日 [illegible]
◆秋田實業◆ 十五日 [illegible]
◆外國棉花◆ 十五日 [illegible]